

200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金斗和*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4. 대학 및 학부(과) 선택 |
| II. 조사방법 및 내용 | 5. 기대하는 교수상 및 대인관계 |
| 1. 조사대상 | 6. 사회관 |
|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 | 7. 상담·봉사센터 이용 |
| III. 결과 분석 | 8. 학교에 바라는 사항 |
| 1. 인적배경 | IV. 요약 및 제언 |
| 2. 고교생활 | 참고 문헌 |
| 3. 대학생활 | Abstract |

I. 머리말

본 조사의 목적은 신입생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과 심리적인 특성 및 가치, 대학생활, 대학의 이미지와 자긍심, 학부(과) 선택의 과정 및 지속적인 수학여부, 교수와의 관계, 고교생활, 대인관계, 사회 문제, 가치관, 상담·봉사센터의 이용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와 학사행정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본 조사·연구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어서 신입생들의 특성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교수

II.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03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에 실시('03. 2/21) 되었으며, 각 학부(과)별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고, 전체 신입생 2,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594명이 질문에 응답하여 전체 신입생의 62.7%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대학 및 남녀 별 조사대상은 <표 A>과 같다.

<표 A> 대학 및 남녀별 조사대상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응답자수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A-1> 대학 및 남녀별 조사대상수(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남	여	계	비 고
'01	1,154 (51.7)	1,077 (48.3)	2,231 (100)	
'02	1,071 (55.5)	858 (45.5)	1,929 (100)	
'03	878 (55.1)	716 (44.9)	1,594 (100)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02학년도에 사용했던 질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문항은 동일하다. 조사내용을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적배경 : 출생년도, 생활근거지, 입학 후 거주할 곳, 재수경험 여부와 유형, 보호자와의 관계, 부모 생존 여부, 보호자 학력 및 직업, 가족수(본인 포함), 가족의 월수입, 가정분위기, 부모에 대한 느낌 및 관심도

- 2) 고교생활 : 고교생활의 만족도, 과외지도 경험 여부와 유형
- 3) 대학생활 : 대학 진학의 목적, 대학생활중 가장 하고 싶은 일, 예상되는 문제점,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장학금 필요 여부와 이유, 아르바이트 욕구도 및 원하는 이유, 재학 중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대한 생각 정도, 원하는 취업 분야,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사항
- 4) 대학 및 학부(과) 선택 : 본교에 대한 이미지 및 인지도, 본교를 지원한 이유, 본교 지원시 정보의 수집 경로, 자긍심의 정도, 학부(과)에 지망한 동기 및 선택시 영향을 미친 사람, 고려한 요인,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의 수집 경로, 선택 시기 및 인지도, 전공과 관련된 직종보유의 희망 여부, 선택한 전공의 계속적 수학 여부, 복수전공에 대한 이수 여부 및 택할 경우의 수학을 단과대학
- 5) 기대하는 교수상 및 대인관계 : 기대하는 교수상, 대인관계의 정도, 자신의 문제점, 문제의 의논 상대, 이성친구의 유무 여부 및 성관계의 허용 여부
- 6) 사회관 : 사회에서의 성공 요인,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제주도민이 겪는 문제점
- 7) 상담·봉사센터 이용 : 상담 여부 및 상담 내용, 봉사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 분야
- 8) 학교에 바라는 사항

이상과 같이 8개 영역 5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단과대학 및 성별로 응답내용을 집계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Ⅲ. 결과 분석

1. 인적배경

1-1. 출생년도

신입생의 출생년도별 빈도를 (표 1-1)에서 살펴보면, '84년에 출생한 학생이 1,143명(71.7%), '85년 이후 출생학생이 297명(18.6%), 그 다음은 '83년과 그 이전 출생학생이 152명(9.5%)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 경향을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인 경우에는 '84년과 그 이후에 출생한 학생이 90.1%, 여학생은 90.6%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하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출생년도

〈단위 : 명(%)〉

출생년도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77년이전		7 (2.6)	4 (3.2)	14 (5.6)	1 (0.8)	-	1 (0.6)	6 (2.1)	2 (0.7)	-	21 (2.4)	14 (2.0)	35 (2.2)
'78년		-	-	-	1 (0.8)	-	2 (1.3)	2 (0.7)	-	-	4 (0.5)	1 (0.1)	5 (0.3)
'79년		-	-	1 (0.4)	1 (0.8)	-	-	-	-	-	1 (0.1)	1 (0.1)	2 (0.1)
'80년		2 (0.7)	1 (0.8)	2 (0.8)	-	2 (2.9)	1 (0.6)	1 (0.3)	1 (0.4)	-	7 (0.8)	2 (0.3)	9 (0.6)
'81년		4 (1.5)	2 (1.6)	2 (0.8)	-	2 (2.9)	-	3 (1.0)	2 (0.7)	-	6 (0.7)	9 (1.3)	15 (0.9)
'82년		5 (1.8)	1 (0.8)	-	3 (2.3)	-	-	10 (3.5)	2 (0.7)	-	11 (1.3)	10 (1.4)	21 (1.3)
'83년		11 (4.0)	4 (3.2)	12 (4.8)	11 (8.3)	1 (1.4)	2 (1.3)	14 (4.8)	8 (2.8)	2 (10.0)	37 (4.2)	28 (3.9)	65 (4.1)
'84년		197 (72.4)	90 (72.6)	170 (68.0)	97 (72.9)	53 (76.8)	120 (75.9)	196 (67.8)	210 (73.9)	13 (65.0)	616 (70.2)	527 (73.6)	1143 (71.7)
'85년이후		46 (16.9)	22 (17.7)	48 (19.2)	19 (14.3)	11 (15.9)	32 (20.3)	56 (19.4)	59 (20.8)	5 (25.0)	175 (19.9)	122 (17.0)	297 (18.6)
무 응 답		-	-	1 (0.4)	-	-	-	1 (0.3)	-	-	-	2 (0.3)	2 (0.1)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1-1〉 출생년도(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01			311 (13.9)	1592 (71.4)	328 (14.7)	
'02		318 (16.5)	1389 (72.0)	222 (11.5)		
'03	297 (18.6)	1143 (71.7)	154 (9.7)			

※ 조사년도별 출생시기에서 최근은 년도 이후, 최저는 년도 이전을 모두 포함한 비율임

1-2. 생활근거지

신입생의 생활근거지는 다음 <표 1-2>과 같다. '제주시'가 63.2%, '서귀포시' 13.3%, 그 외의 '읍·면' 지역이 17.2%이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 지역은 5.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제주시'인 경우 58.1%→63.2%(남 : 52.7%→61.2%, 여 : 64.8%→65.6%)로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훨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타 시·도' 지역인 경우는 10.9%(211명)→5.9%(95명)(남 : 13.3%→7.6%, 여 : 7.2%→3.7%)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타 시·도' 지역의 분포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농생대(15.9%), 자연대(14.6%), 해양대(10.1%) 순(* 전년도는 경상대(27.8%), 농과대(17.3%), 자연대(1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타 시·도' 지역 학생의 분포가 적은 이유는 전국적으로 대학 모집정원 보다 수험생이 적은 '대입정원 역조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2> 생활근거지

<단위 : 명(%)>

생활근거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제 주 시	183 (67.3)	85 (68.5)	171 (68.4)	87 (65.4)	34 (49.3)	83 (52.5)	165 (57.1)	187 (65.8)	15 (75.0)	537 (61.2)	470 (65.6)	1007 (63.2)
서 귀 포 시	33 (12.1)	9 (7.3)	53 (21.2)	19 (14.3)	12 (17.4)	18 (11.4)	27 (9.3)	39 (13.7)	3 (15.0)	116 (13.2)	96 (13.4)	212 (13.3)
에 월 읍	11 (4.0)	4 (3.2)	6 (2.4)	5 (3.8)	3 (4.3)	4 (2.5)	10 (3.5)	14 (4.9)	1 (5.0)	33 (3.8)	25 (3.5)	58 (3.6)
한 립 읍	9 (3.3)	3 (2.4)	4 (1.6)	1 (0.8)	1 (1.4)	11 (7.0)	9 (3.1)	11 (3.9)	-	32 (3.6)	17 (2.4)	49 (3.1)
한 경 면	-	1 (0.8)	-	1 (0.8)	1 (1.4)	2 (1.3)	-	2 (0.7)	-	6 (0.7)	1 (0.1)	7 (0.4)
대 정 읍	4 (1.5)	3 (2.4)	7 (2.8)	2 (1.5)	1 (1.4)	5 (3.2)	7 (2.4)	6 (2.1)	-	22 (2.5)	12 (1.7)	34 (2.1)
안 덕 면	2 (0.7)	-	-	3 (2.3)	1 (1.4)	2 (1.3)	4 (1.4)	4 (1.4)	-	10 (1.1)	6 (.8)	16 (1.0)
남 원 읍	6 (2.2)	1 (0.8)	8 (3.2)	3 (2.3)	3 (4.3)	1 (0.6)	5 (1.7)	7 (2.5)	1 (5.0)	14 (1.6)	21 (2.9)	35 (2.2)
표 선 면	-	1 (0.8)	1 (0.4)	-	-	4 (2.5)	1 (0.3)	-	-	5 (0.6)	2 (0.3)	7 (0.4)
성 산 읍	2 (0.7)	-	-	1 (0.8)	1 (1.4)	1 (0.6)	6 (2.1)	2 (0.7)	-	10 (1.1)	3 (0.4)	13 (0.8)
구 좌 읍	5 (1.8)	2 (1.6)	-	1 (0.8)		3 (1.9)	5 (1.7)	3 (1.1)	-	8 (0.9)	11 (1.5)	19 (1.2)
조 천 읍	6 (2.2)	11 (8.9)	-	5 (3.8)	1 (1.4)	6 (3.8)	7 (2.4)	2 (0.7)	-	16 (1.8)	22 (3.1)	38 (2.4)

구분 생활근거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우 도 면	-	-	-	-	-	-	-	-	-	-	-	-
추 자 면	-	-	-	-	-	-	-	-	-	-	-	-
서 울	-	-	-	-	6 (8.7)	-	9 (3.1)	-	-	13 (1.5)	2 (0.3)	15 (0.9)
부 산	3 (1.1)	1 (0.8)	-	2 (1.5)	2 (2.9)	1 (0.6)	5 (1.7)	1 (0.4)	-	7 (0.8)	8 (1.1)	15 (0.9)
대 구	1 (0.4)	-	-	-	-	-	5 (1.7)	2 (0.7)	-	5 (0.6)	3 (0.4)	8 (0.5)
대 전	-	-	-	-	-	-	1 (0.3)	-	-	1 (0.1)	-	1 (0.1)
인 천	1 (0.4)	1 (0.8)	-	-	-	-	10 (6.3)	5 (1.7)	-	16 (1.8)	1 (0.1)	17 (1.1)
광 주	-	1 (0.8)	-	-	-	-	1 (0.3)	-	-	1 (0.1)	1 (0.1)	2 (0.1)
경 기	-	-	-	-	-	-	2 (0.7)	-	-	-	2 (0.3)	2 (0.1)
강 원	-	-	-	-	-	-	-	-	-	-	-	-
경 북	-	-	-	-	1 (1.4)	-	3 (1.0)	1 (0.4)	-	4 (0.5)	1 (0.1)	5 (0.3)
경 남	1 (0.4)	-	-	-	-	-	1 (0.3)	-	-	2 (0.2)	-	2 (0.1)
충 북	1 (0.4)	1 (0.8)	-	-	-	-	4 (1.4)	-	-	3 (0.3)	3 (0.4)	6 (0.4)
충 남	1 (0.4)	-	-	-	-	-	-	1 (0.4)	-	1 (0.1)	1 (0.1)	2 (0.1)
전 북	1 (0.4)	-	-	-	-	2 (1.3)	-	-	-	2 (0.2)	1 (0.1)	3 (0.2)
전 북	-	-	-	-	-	2 (1.3)	4 (1.4)	-	-	5 (0.6)	1 (0.1)	6 (0.4)
전 남	1 (0.4)	-	-	3 (2.3)	2 (2.9)	1 (0.6)	3 (1.0)	1 (0.4)	-	7 (0.8)	4 (0.6)	11 (0.7)
무 응 답	1 (0.4)	-	-	-	-	2 (1.3)	-	1 (0.4)	-	2 (0.2)	2 (0.3)	4 (0.3)
합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2-1〉 생활근거지(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학년도별	도 내					도 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서울	부산	대구	기타	계
'01	1381 (61.9)	245 (11.0)	224 (10.0)	184 (8.2)	2034 (91.9)	30 (1.3)	36 (1.6)	6 (0.3)	128 (5.5)	200 (8.7)
'02	1120 (58.1)	196 (10.2)	231 (12.2)	170 (8.8)	1717 (89.3)	51 (2.6)	10 (0.5)	5 (0.3)	146 (7.6)	212 (11.0)
'03	1007 (63.2)	212 (13.3)	171 (10.7)	105 (6.5)	1,495 (93.7)	15 (0.9)	15 (0.9)	8 (0.5)	61 (3.9)	99 (6.2)

1-3. 입학 후 거주할 곳

신입생들의 입학후 거주할 곳은 '본가' 66.4%로 가장 많고, '자취' 19.3%, '기숙사' 6.7%, '친척 및 친지' 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하면 '본가' 64.1%→66.4%, '자취' 22.4%→19.3%, '기숙사' 6.2%→6.7%, '친척 및 친지' 4.8%→4.9%로 다소 증감을 나타냈다. 대학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기숙사' 인 경우에는 경상대, 자연대, 해양대, 농생대, 법정대, 공과대, 인문대, 사범대생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6.9%(61명)로서 여학생의 6.4%(46명)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입학 후 거주할 곳

〈단위 : 명(%)〉

구분 거주할 곳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본 가	187 (68.8)	93 (75.0)	139 (55.6)	99 (74.4)	37 (53.6)	105 (66.5)	182 (63.0)	203 (71.5)	16 (80.0)	563 (64.1)	496 (69.3)	1059 (66.4)
친 척 , 친 지	20 (7.4)	7 (5.6)	13 (5.2)	8 (6.0)	3 (4.3)	5 (3.2)	14 (4.8)	8 (2.8)	1 (5.0)	38 (4.3)	40 (5.6)	78 (4.9)
자 취	52 (19.1)	15 (12.1)	49 (19.6)	20 (15.0)	23 (33.3)	32 (20.3)	59 (20.4)	56 (19.7)	3 (15.0)	182 (20.7)	126 (17.6)	308 (19.3)
하 숙	3 (1.1)	1 (0.8)	12 (4.8)	2 (1.5)	-	3 (1.9)	9 (3.1)	7 (2.5)	-	32 (3.6)	5 (0.7)	37 (2.3)
기 숙 사	9 (3.3)	8 (6.5)	34 (13.6)	4 (3.0)	5 (7.2)	13 (8.2)	25 (8.7)	10 (3.5)	-	61 (6.9)	46 (6.4)	107 (6.7)
무 응 답	1 (0.4)	-	3 (1.2)	-	1 (1.4)	-	-	-	-	2 (0.2)	3 (0.4)	5 (0.3)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3-1〉 입학 후 거주할 곳(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 분 학년도별	본 가	자 취	하 숙	기 숙 사	기 타
'01	1525 (68.4)	458 (20.5)	51 (2.3)	93 (4.2)	104 (4.6)
'02	1237 (64.1)	433 (22.4)	42 (2.2)	120 (6.2)	97 (5.0)
'03	1059 (66.4)	308 (19.3)	37 (2.3)	107 (6.7)	83 (5.2)

1-4. 재수경험 여부와 유형

재수경험의 여부와 유형에 대해 신입생들의 91.4%(전년도 89.4%)는 재수하지 않았으며, 전년도 보다는 재수한 신입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재수경험이 있는 학생의 유형으로는 5.8%가 '1년 재수'를 하였고, '2년이상 재수'자는 1.5%였으며, '검정고시' 입학생도 전년도 0.3%보다 조금 증가한 0.6%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재수하지 않은 학생의 분포가 가장 높은 대학은 공과대로 95.4%, '1년 재수'는 사범대로 10.5%, '2년 재수'와 '3년이상 재수'는 각각 2.4%, 1.4%로 자연대생이며, 이는 전년도의 분포 순위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1-4〉 재수경험 여부와 유형

〈단위: 명(%)〉

구 분 경험 여부와 유형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없 다	252 (92.6)	114 (91.9)	229 (91.6)	115 (86.5)	65 (94.2)	149 (94.3)	249 (86.2)	271 (95.4)	18 (90.0)	799 (91.0)	658 (91.9)	1457 (91.4)
1 년 재 수	17 (6.3)	8 (6.5)	14 (5.6)	14 (10.5)	2 (2.9)	4 (2.5)	21 (7.3)	10 (3.5)	2 (10.0)	53 (6.0)	39 (5.4)	92 (5.8)
2 년 재 수	1 (0.4)	-	1 (0.4)	2 (1.5)	-	-	7 (2.4)	-	-	7 (0.8)	4 (0.6)	11 (0.7)
3 년이상 재수	1 (0.4)	-	2 (0.8)	2 (1.5)	1 (1.4)	-	4 (1.4)	2 (0.7)	-	5 (0.6)	7 (1.0)	12 (0.8)
검정고시 출신	1 (0.4)	1 (0.8)	2 (0.8)	-	1 (1.4)	3 (1.9)	2 (0.7)	-	-	8 (0.9)	2 (0.3)	10 (0.6)
무 응 답	-	1 (0.8)	2 (0.8)	-	-	2 (1.3)	6 (2.1)	1 (0.4)	-	6 (0.7)	6 (0.8)	12 (0.8)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4-1) 재수경험 여부와 유형(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학년도별	없 다	1년 재수	2년 재수	기 타
'01	1955 (87.6)	220 (9.9)	26 (1.2)	30 (1.4)
'02	1724 (89.4)	142 (7.4)	32 (1.7)	31 (1.6)
'03	1457 (91.4)	92 (5.8)	11 (0.7)	34 (2.2)

1-5. 보호자와의 관계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보면, 보호자가 '아버지' 인 경우 85.9%, '어머니' 7.9%, '형·누나, 조부모, 친척, 기타' 4.4%로서 '아버지'가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보호자가 '부모' 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95.8%→93.8%)한 반면에 '형·누나, 조부모, 친척, 기타' 인 경우는 증가(3.1%→3.7%)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것은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표 1-5〉 보호자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보호자와의 관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부	237 (87.1)	104 (83.9)	207 (82.8)	119 (89.5)	58 (84.1)	133 (84.2)	251 (86.9)	243 (85.6)	20 (100.0)	735 (83.7)	635 (88.7)	1370 (85.9)
모	23 (8.5)	11 (8.9)	20 (8.0)	13 (9.8)	4 (5.8)	10 (6.3)	23 (8.0)	23 (8.1)	-	75 (8.5)	51 (7.1)	126 (7.9)
형, 누나	2 (0.7)	-	2 (0.8)	-	1 (1.4)	1 (0.6)	2 (0.7)	4 (1.4)	-	7 (0.8)	4 (0.6)	11 (0.7)
조 부모	2 (0.7)	2 (1.6)	-	-	2 (2.9)	2 (1.3)	3 (1.0)	4 (1.4)	-	12 (1.4)	3 (0.4)	15 (0.9)
친 척	5 (1.8)	2 (1.6)	2 (0.8)	1 (0.8)	1 (1.4)	1 (0.6)	-	2 (0.7)	-	9 (1.0)	5 (0.7)	14 (0.9)
기 타	3 (1.1)	-	11 (4.4)	-	2 (2.9)	7 (4.4)	5 (1.7)	4 (1.4)	-	23 (2.6)	8 (1.1)	31 (1.9)
무 응 답	-	5 (4.0)	8 (3.2)	-	1 (1.4)	4 (2.5)	5 (1.7)	4 (1.4)	-	17 (1.9)	10 (1.4)	27 (1.7)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5-1〉 보호자와의 관계(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 분 학년도별	부	모	형·누나	조부모	기 타
'01	1947 (87.3)	174 (7.8)	26 (1.2)	11 (0.5)	73 (3.3)
'02	1685 (87.4)	162 (8.4)	23 (1.2)	10 (0.5)	49 (2.5)
'03	1370 (85.9)	126 (7.9)	11 (0.7)	15 (0.9)	72 (4.5)

1-6. 부모 생존 여부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별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하여 '양친 모두 살아 계신 경우'가 91.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슷하다. 그 다음이 '어머니만 살아 계신 경우' 4.3%, '양친이 이혼한 경우' 4.0%, '양친이 별거 중인 경우' 3.6%이며, '양친 모두 안 계신 경우'와 '아버지만 살아 계신 경우'도 각각 1.0%(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과 남녀별로 보면 의과대생인 경우는 100%가 양친 모두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보다 높게 '양친이 모두 살아 계신 경우'로 나타났다.

〈표 1-6〉 부모 생존 여부

(단위: 명(%))

구 분 부모 생존 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양친 모두 사망	2 (0.7)	2 (1.6)	4 (1.6)	2 (1.5)	-	-	3 (1.0)	3 (1.1)	-	8 (0.9)	8 (1.1)	16 (1.0)
모 사 망	4 (1.5)	1 (0.8)	2 (0.8)	2 (1.5)	-	1 (0.6)	2 (0.7)	4 (1.4)	-	10 (1.1)	6 (0.8)	16 (1.0)
부 사 망	10 (3.7)	11 (8.9)	9 (3.6)	4 (3.0)	2 (2.9)	8 (5.1)	14 (4.8)	10 (3.5)	-	39 (4.4)	29 (4.1)	68 (4.3)
양친 생존 동거	224 (82.4)	97 (78.2)	212 (84.8)	111 (83.5)	61 (88.4)	134 (84.8)	246 (85.1)	243 (85.6)	20 (100.0)	720 (82.0)	623 (87.0)	1343 (84.3)
양친 생존 별거중	12 (4.4)	4 (3.2)	10 (4.0)	7 (5.3)	-	8 (5.1)	6 (2.1)	10 (3.5)	-	43 (4.9)	14 (2.0)	57 (3.6)
양친 생존 이혼	17 (6.3)	4 (3.2)	8 (3.2)	6 (4.5)	5 (7.2)	4 (2.5)	10 (3.5)	9 (3.2)	-	41 (4.7)	22 (3.1)	63 (4.0)
무 응 답	3 (1.1)	5 (4.0)	5 (2.0)	1 (0.8)	1 (1.4)	3 (1.9)	8 (2.8)	5 (1.8)	-	17 (1.9)	14 (2.0)	31 (1.9)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6-1〉 부모 생존 여부(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부 사망	양친생존 동거	양친생존 별거중	양친생존 이혼	기 타
'01	118 (5.3)	1924 (86.2)	47 (2.1)	71 (3.2)	71 (3.6)
'02	95 (4.9)	1654 (85.7)	59 (3.1)	52 (2.7)	69 (3.6)
'03	68 (4.3)	1343 (84.3)	57 (3.6)	63 (4.0)	63 (3.9)

1-7. 보호자 학력

신입생 보호자의 학력을 보면, '고 중퇴~고졸' 52.3%, '대 중퇴~대졸' 23.9%, '중 중퇴~중졸' 9.3%, '초 중퇴~초졸' 5.5%, '대학원졸이상' 5.2%, '무학~고학'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인 경우에 무학에서 고졸까지 71.1%, 여학생은 68.3%, 그리고 대 중퇴에서 대학원졸이상까지는 남학생이 27.9%, 여학생이 30.6%로 나타나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보호자 학력이 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마다 보호자의 학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보호자 학력

〈단위 : 명(%)〉

구 분 보호자 학력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무 학 ~ 고 학	4 (1.5)	4 (3.2)	8 (3.2)	2 (1.5)	5 (7.2)	7 (4.4)	6 (2.1)	8 (2.8)	-	32 (3.6)	12 (1.7)	44 (2.8)
초 중퇴~초졸	19 (7.0)	5 (4.0)	18 (7.2)	5 (3.8)	2 (2.9)	12 (7.6)	15 (5.2)	11 (3.9)	1 (5.0)	58 (6.6)	30 (4.2)	88 (5.5)
중 중퇴~중졸	18 (6.6)	11 (8.9)	26 (10.4)	11 (8.3)	7 (10.1)	18 (11.4)	26 (9.0)	29 (10.2)	4 (20.0)	94 (10.7)	54 (7.5)	148 (9.3)
고 중퇴~고졸	156 (57.4)	59 (47.6)	128 (51.2)	75 (56.4)	34 (49.3)	86 (54.4)	149 (51.6)	141 (49.6)	8 (40.0)	441 (50.2)	393 (54.9)	834 (52.3)
대 중퇴~대졸	61 (22.4)	41 (33.1)	54 (21.6)	35 (26.3)	17 (24.6)	28 (17.7)	65 (22.5)	77 (27.1)	4 (20.0)	193 (22.0)	188 (26.3)	381 (23.9)
대학원졸이상	13 (4.8)	3 (2.4)	12 (4.8)	5 (3.8)	4 (5.8)	7 (4.4)	22 (7.6)	14 (4.9)	3 (15.0)	52 (5.9)	31 (4.3)	83 (5.2)
무 응 답	1 (0.4)	1 (0.8)	4 (1.6)	-	-	-	6 (2.1)	4 (1.4)	-	8 (0.9)	8 (1.1)	16 (1.0)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7-1〉 보호자 학력(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분	무학~고학	초 중퇴 ~초졸	중 중퇴 ~중졸	고 중퇴 ~고졸	대 중퇴 ~대졸	대학원졸 이상	무응답
'01	47 (2.1)	173 (7.8)	268 (12.0)	1095 (49.1)	479 (21.5)	139 (6.2)	30 (1.3)
'02	51 (2.6)	95 (4.9)	204 (10.6)	991 (51.4)	442 (22.9)	121 (6.3)	25 (1.3)
'03	44 (2.8)	88 (5.5)	148 (9.3)	834 (52.3)	381 (23.9)	83 (5.2)	16 (1.0)

1-8. 보호자 직업

신입생 보호자의 직업을 보면, '농업'이 1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판매·서서비스직' 13.5%, '상업' 12.4%, '전문기술직' 9.8%, '행정사무직' 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의 특성을 가진 직업인 '농업', '축산업', '어업', '수산업'은 23.7%로 전체적인 직업 분포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농업'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1.2%(20.5%→19.3%)가 줄어 매년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1-8〉 보호자 직업

〈단위: 명(%)〉

구분	대학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문직	29 (10.7)	11 (8.9)	25 (10.0)	11 (8.3)	3 (4.3)	14 (8.9)	38 (13.1)	25 (8.8)	1 (5.0)	88 (10.0)	68 (9.5)	156 (9.8)
숙련기술직	18 (6.6)	5 (4.0)	15 (6.0)	7 (5.3)	5 (7.2)	9 (5.7)	12 (4.2)	14 (4.9)	1 (5.0)	46 (5.2)	40 (5.6)	86 (5.4)
육체노동	9 (3.3)	1 (0.8)	8 (3.2)	2 (1.5)	-	4 (2.5)	3 (1.0)	2 (0.7)	3 (15.0)	17 (1.9)	15 (2.1)	32 (2.0)
경영관리직	11 (4.0)	3 (2.4)	16 (6.4)	4 (3.0)	2 (2.9)	6 (3.8)	15 (5.2)	15 (5.3)	1 (5.0)	36 (4.1)	36 (5.0)	72 (4.5)
행정사무직	23 (8.5)	18 (14.5)	12 (4.8)	18 (13.5)	4 (5.8)	12 (7.6)	25 (8.7)	19 (6.7)	1 (5.0)	75 (8.5)	56 (7.8)	131 (8.2)
군인, 경찰	4 (1.5)	2 (1.6)	1 (0.4)	1 (0.8)	3 (4.3)	2 (1.3)	4 (1.4)	3 (1.1)	1 (5.0)	11 (1.3)	10 (1.4)	21 (1.3)
농업	48 (17.6)	27 (21.8)	48 (19.2)	30 (22.6)	17 (24.6)	34 (21.5)	47 (16.3)	54 (19.0)	2 (10.0)	170 (19.4)	137 (19.1)	307 (19.3)
축산업	3 (1.1)	1 (0.8)	3 (1.2)	-	2 (2.9)	3 (1.9)	-	6 (2.1)	1 (5.0)	10 (1.1)	9 (1.3)	19 (1.2)
어업	4 (1.5)	1 (0.8)	4 (1.6)	1 (0.8)	1 (1.4)	2 (1.3)	8 (2.8)	9 (3.2)	1 (5.0)	22 (2.5)	8 (1.1)	30 (1.9)

보호자 직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수 산 업		1 (0.4)	-	3 (1.2)	-	2 (2.9)	4 (2.5)	6 (2.1)	4 (1.4)	-	15 (1.7)	5 (0.7)	20 (1.3)
판매·서어비스직		45 (16.5)	16 (12.9)	31 (12.4)	25 (18.8)	7 (10.1)	20 (12.7)	36 (12.5)	32 (11.3)	3 (15.0)	118 (13.4)	97 (13.5)	215 (13.5)
상 업		30 (11.0)	15 (12.1)	42 (16.8)	17 (12.8)	8 (11.6)	18 (11.4)	37 (12.8)	29 (10.2)	1 (5.0)	90 (10.3)	107 (14.9)	197 (12.4)
교 직		16 (5.9)	4 (3.2)	10 (4.0)	7 (5.3)	1 (1.4)	3 (1.9)	12 (4.2)	12 (4.2)	2 (10.0)	38 (4.3)	29 (4.1)	67 (4.2)
무 직		3 (1.1)	-	-	2 (1.5)	2 (2.9)	2 (1.3)	6 (2.1)	3 (1.1)	-	11 (1.3)	6 (0.8)	17 (1.1)
기 타		26 (9.6)	18 (14.5)	30 (12.0)	8 (6.0)	12 (17.4)	25 (15.8)	40 (13.8)	55 (19.4)	2 (10.0)	129 (14.7)	87 (12.2)	216 (13.6)
무 용 답		2 (0.7)	2 (1.6)	2 (0.8)	-	-	-	-	2 (0.7)	-	2 (0.2)	6 (0.8)	8 (0.5)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8-1〉 보호자 직업(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전 문 직	숙련기술직	행정사무직	농 업	판매·서어 비스직	상 업	교 직	기 타
'01	171 (7.7)	173 (7.8)	216 (9.7)	492 (22.1)	338 (15.2)	306 (13.7)	132 (5.9)	403 (18.1)
'02	119 (6.2)	149 (7.7)	225 (11.7)	396 (20.5)	302 (15.7)	258 (13.4)	92 (4.8)	388 (20.1)
'03	156 (9.8)	86 (5.4)	131 (8.2)	307 (19.3)	215 (13.5)	197 (12.4)	67 (4.2)	427 (27.4)

1-9. 가족수(본인 포함)

본인을 포함한 학생의 가족수를 알아본 결과, '4인 가족'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 44.3%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인 가족'이 28.1%로서 전년도 27.3%에 비해 높고, '6인 가족' 10.7%, '3인 가족'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7인~9인이상 가족'을 볼 때, 아직까지 대가족의 경우도 5.5%나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 비해 조금 감소(6.7%→5.5%)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 혼자인 경우는 없었으며, '2인 가족'(학생과 부, 또는 모만 동거)도 1.8%(29명)가 된다.

〈표 1-9〉 가족수(본인 포함)

〈단위 : 명(%)〉

가족 수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1 명		-	-	-	-	-	-	-	-	-	-	-	
2 명		3 (1.1)	4 (3.2)	6 (2.4)	3 (2.3)	1 (1.4)	3 (1.9)	5 (1.7)	4 (1.4)	-	25 (2.8)	4 (0.6)	29 (1.8)
3 명		33 (12.1)	9 (7.3)	27 (10.8)	6 (4.5)	5 (7.2)	14 (8.9)	18 (6.2)	20 (7.0)	-	81 (9.2)	51 (7.1)	132 (8.3)
4 명		107 (39.3)	51 (41.1)	111 (44.4)	48 (36.1)	35 (50.7)	80 (50.6)	145 (50.2)	139 (48.9)	5 (25.0)	463 (52.7)	256 (35.8)	719 (45.1)
5 명		79 (29.0)	40 (32.3)	61 (24.4)	56 (42.1)	16 (23.2)	40 (25.3)	73 (25.3)	77 (27.1)	8 (40.0)	194 (22.1)	254 (35.5)	448 (28.1)
6 명		26 (9.6)	14 (11.3)	32 (12.8)	14 (10.5)	8 (11.6)	13 (8.2)	35 (12.1)	25 (8.8)	5 (25.0)	75 (8.5)	96 (13.4)	171 (10.7)
7 명		15 (5.5)	2 (1.6)	10 (4.0)	4 (3.0)	2 (2.9)	4 (2.5)	7 (2.4)	13 (4.6)	2 (10.0)	22 (2.5)	37 (5.2)	59 (3.7)
8 명		3 (1.1)	2 (1.6)	1 (0.4)	1 (0.8)	2 (2.9)	3 (1.9)	4 (1.4)	6 (2.1)	-	13 (1.5)	9 (1.3)	22 (1.4)
9명이상		3 (1.1)	2 (1.6)	2 (0.8)	-	-	-	-	-	-	3 (0.3)	4 (0.6)	7 (0.4)
무 응답		3 (1.1)	-	-	1 (0.8)	-	1 (0.6)	2 (0.7)	-	-	2 (0.2)	5 (0.7)	7 (0.4)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9-1〉 가족수(본인 포함)(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3명	4명	5명	6명	기 타
학년도별					
'01	140 (6.3)	919 (41.2)	654 (29.3)	311 (13.9)	207 (9.3)
'02	158 (8.2)	885 (44.3)	527 (27.3)	229 (11.9)	160 (8.3)
'03	132 (8.3)	719 (45.1)	448 (28.1)	171 (10.7)	124 (7.7)

1-10. 가족의 월수입

가정의 월수입을 보면, '150~199만원' 19.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149만원' 19.4%, '201~249만원' 15.1%, '300만원이상' 14.8%의 순이며, 월수입이 '51~99만원' 과 '50만원이하' 인 가족도 각각 6.6%, 3.0%로 9.6%를 차지하는데, 이를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99만원이하' 의 남학생인 경우에 12.4%, 여학생은 6.2%로 무려 여학생 보다 두배가 넘는 저소득층의 남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50만원이상' 의 고소득층의 학생 분포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상대 29.2%, 사범대 25.6%, 의과대생이 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0〉 가족의 월수입

〈단위: 명(%)〉

구 분 가족의 월수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50 만 원 이 하	5 (1.8)	3 (2.4)	7 (2.8)	3 (2.3)	4 (5.8)	11 (7.0)	7 (2.4)	8 (2.8)	-	37 (4.2)	11 (1.5)	48 (3.0)
51 ~ 99 만 원	16 (5.9)	6 (4.8)	17 (6.8)	11 (8.3)	6 (8.7)	15 (9.5)	18 (6.2)	18 (6.3)	-	72 (8.2)	34 (4.7)	106 (6.6)
100~149만원	56 (20.6)	27 (21.8)	47 (18.8)	25 (18.8)	14 (20.3)	25 (15.8)	63 (21.8)	51 (18.0)	2 (10.0)	175 (19.9)	135 (18.9)	310 (19.4)
150~199만원	54 (19.9)	23 (18.5)	39 (15.6)	33 (24.8)	12 (17.4)	37 (23.4)	55 (19.0)	51 (18.0)	7 (35.0)	170 (19.4)	141 (19.7)	311 (19.5)
201~249만원	45 (16.5)	20 (16.1)	34 (13.6)	17 (12.8)	6 (8.7)	19 (12.0)	43 (14.9)	54 (19.0)	4 (20.0)	137 (15.6)	104 (14.5)	241 (15.1)
250~299만원	23 (8.5)	9 (7.3)	26 (10.4)	15 (11.3)	6 (8.7)	9 (5.7)	22 (7.6)	27 (9.5)	1 (5.0)	78 (8.9)	58 (8.1)	136 (8.5)
300만원이상	33 (12.1)	11 (8.9)	47 (18.8)	19 (14.3)	9 (13.0)	25 (15.8)	47 (16.3)	42 (14.8)	4 (20.0)	126 (14.4)	110 (15.4)	236 (14.8)
무 응 답	40 (14.7)	25 (20.2)	33 (13.2)	10 (7.5)	12 (17.4)	17 (10.8)	34 (11.8)	33 (11.6)	2 (10.0)	83 (9.5)	123 (17.2)	206 (12.9)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10-1〉 가족의 월수입(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 분 학년도별	50만원이하	51~99만원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이상	기 타
'01	89 (4.0)	289 (13.0)	540 (24.2)	373 (16.7)	571 (25.6)	369 (16.5)
'02	78 (4.0)	223 (11.6)	432 (22.4)	303 (15.7)	613 (31.8)	280 (14.5)
'03	48 (3.0)	106 (6.6)	621 (38.9)	377 (23.6)	236 (14.8)	206 (12.9)

1-11. 가정분위기

학생의 가정분위기를 보면, '화목하다'는 반응이 86.6%, '불화가 있다'는 반응에도 12.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화목하다' (86.0→86.6%)는 학생은 증가하였고, '불화가 있다' (13.5%→12.9%)는 학생은 조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살펴보면, '화목하다'에 여학생이 90.0%로 남학생의 83.7%, '불화가 있다'에 남학생이 15.9%, 여학생이 9.2%로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가정분위기가 화목하고 덜 불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가정분위기

〈단위 : 명(%)〉

구 분 가정분위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불 화 가 심 함	7 (2.6)	2 (1.6)	2 (0.8)	3 (2.3)	2 (2.9)	13 (8.2)	2 (0.7)	8 (2.8)	-	27 (3.1)	11 (1.5)	38 (2.4)
약간 불화가 있음	30 (11.0)	19 (15.3)	17 (6.8)	12 (9.0)	11 (15.9)	18 (11.4)	29 (10.0)	31 (10.9)	1 (5.0)	112 (12.8)	55 (7.7)	167 (10.5)
비교적 화목함	147 (54.0)	68 (54.8)	138 (55.2)	81 (60.9)	37 (53.6)	92 (58.2)	152 (52.6)	170 (59.9)	13 (65.0)	504 (57.4)	392 (54.7)	896 (56.2)
매우 화목함	84 (30.9)	35 (28.2)	93 (37.2)	36 (27.1)	19 (27.5)	34 (21.5)	104 (36.0)	74 (26.1)	6 (30.0)	231 (26.3)	253 (35.3)	484 (30.4)
무 응 답	4 (1.5)	-	-	1 (0.8)	-	1 (0.6)	2 (0.7)	1 (0.4)	-	4 (0.5)	5 (0.7)	9 (0.6)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11-1〉 가정분위기(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불화가 심함	약간 불화가 있음	비교적 화목함	매우 화목함	기 타
'01	37 (1.7)	229 (10.3)	1363 (61.1)	585 (26.2)	17 (0.8)
'02	34 (1.8)	226 (11.7)	1112 (57.6)	548 (28.4)	9 (0.5)
'03	38 (2.4)	167 (10.5)	896 (56.2)	484 (30.4)	9 (0.6)

1-12 부모에 대한 느낌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표 1-12>과 같이 알아본 결과, '만족하다'는 반응이 81.1%이고, '그저 그렇다' 14.3%, '불만족스럽다' 4.2%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만족스럽다'에 여학생이 83.3%로 남학생의 79.3%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여학생(84.6%→83.3%)은 감소하였고, 남학생(75.9%→79.3%)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부모에 대한 느낌

<단위 : 명(%)>

느낌 정도 \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만족함	84 (30.9)	29 (23.4)	85 (34.0)	34 (25.6)	16 (23.2)	39 (24.7)	101 (34.9)	83 (29.2)	8 (40.0)	239 (27.2)	239 (33.4)	478 (30.0)
만족함	141 (51.8)	73 (58.9)	122 (48.8)	77 (57.9)	32 (46.4)	76 (48.1)	145 (50.2)	141 (49.6)	9 (45.0)	457 (52.1)	357 (49.9)	814 (51.1)
그저 그렇다	32 (11.8)	14 (11.3)	36 (14.4)	20 (15.0)	14 (20.3)	29 (18.4)	32 (11.1)	50 (17.6)	2 (10.0)	137 (15.6)	91 (12.7)	228 (14.3)
불만족함	11 (4.0)	4 (3.2)	4 (1.6)	1 (0.8)	3 (4.3)	5 (3.2)	9 (3.1)	6 (2.1)	1 (5.0)	25 (2.8)	19 (2.7)	44 (2.8)
매우 불만족함	2 (0.7)	3 (2.4)	3 (1.2)	-	3 (4.3)	8 (5.1)	1 (0.3)	3 (1.1)	-	17 (1.9)	5 (0.7)	22 (1.4)
무응답	2 (0.7)	1 (0.8)	-	1 (0.8)	1 (1.4)	1 (9.6)	1 (9.3)	1 (0.4)	-	3 (0.3)	5 (0.7)	8 (0.5)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12-1> 부모에 대한 느낌(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학년도별 \ 구분	매우 만족함	만족함	그저 그렇다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기 타
'01	505 (22.6)	1262 (56.6)	350 (15.7)	63 (2.8)	34 (1.5)	17 (0.8)
'02	488 (25.3)	1050 (54.4)	289 (15.0)	57 (3.0)	29 (1.5)	16 (0.8)
'03	478 (30.0)	814 (51.1)	228 (14.3)	44 (2.8)	22 (1.4)	8 (0.5)

1-13. 부모의 관심도

학생은 부모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크다'는 반응이 74.0%, '보통이다'가 21.1%, '관심이 적거나, 전혀 없다'에 3.8%를 나타내고 있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관심이 크다'에 남학생은 76.1%, 여학생은 71.4%로 나타나, <표 1-12>의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과는 서로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13> 부모의 관심도

<단위 : 명(%)>

구 분 부모 관심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관심이 큼	113 (41.5)	62 (50.0)	117 (46.8)	68 (51.1)	25 (36.2)	58 (36.7)	153 (52.9)	105 (37.0)	9 (45.0)	395 (45.0)	314 (43.9)	709 (44.5)
약간 관심이 큼	74 (27.2)	38 (30.6)	69 (27.6)	39 (29.3)	20 (29.0)	51 (32.3)	77 (26.6)	99 (34.9)	5 (25.0)	273 (31.1)	197 (27.5)	470 (29.5)
보 통 이 다	70 (25.7)	19 (15.3)	54 (21.6)	24 (18.0)	16 (23.2)	35 (22.2)	45 (15.6)	70 (24.6)	5 (25.0)	165 (18.8)	172 (24.0)	337 (21.1)
관심 이 적 음	8 (2.9)	2 (1.6)	8 (3.2)	1 (0.8)	4 (5.8)	4 (2.5)	9 (3.1)	7 (2.5)	1 (5.0)	24 (2.7)	20 (2.8)	44 (2.8)
전혀 관심이 없음	4 (1.5)	1 (0.8)	1 (0.4)	-	1 (1.4)	6 (3.8)	2 (0.7)	2 (0.7)	-	12 (1.4)	4 (0.6)	16 (1.0)
무 응 답	3 (1.1)	2 (1.6)	1 (0.4)	1 (0.8)	3 (4.3)	4 (2.5)	3 (1.0)	1 (0.4)	-	9 (1.0)	9 (1.3)	18 (1.1)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1-13-1> 부모의 관심도(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매우 관심이 큼	약간 관심이 큼	보통이다	관심이 적음	전혀 관심이 없음	기 타
'01	942 (42.2)	684 (30.7)	526 (23.6)	46 (2.1)	17 (0.8)	16 (0.7)
'02	842 (43.6)	588 (30.5)	420 (21.8)	50 (2.6)	19 (1.0)	10 (0.5)
'03	709 (44.5)	470 (29.5)	337 (21.1)	44 (2.8)	16 (1.0)	18 (1.1)

2. 고교생활

2-1. 고교생활의 만족도

학생의 고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스러웠다'가 48.1%(전년도 47.4%), '그저 그랬다'가 26.0%(전년도 29.7%), '매우 만족스러웠다'가 15.7%(전년도 12.1%)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나, 남녀별로 보면,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에 여학생은 68.6%(전년도 63.7%)이나, 남학생은 59.9%(전년도 56.3%)로 나타나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만족스러운 고교생활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 고교생활의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만족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만족했음	34 (12.5)	23 (18.5)	54 (21.6)	22 (16.5)	5 (7.2)	27 (17.1)	50 (17.3)	35 (12.3)	2 (10.0)	132 (15.0)	119 (16.6)	251 (15.7)
만 족 했 음	142 (52.2)	60 (48.4)	120 (48.0)	76 (57.1)	30 (43.5)	68 (43.0)	123 (42.6)	136 (47.9)	14 (70.0)	394 (44.9)	372 (52.0)	766 (48.1)
그 저 그 랐 다	72 (26.5)	30 (24.2)	58 (23.2)	29 (21.8)	18 (26.1)	39 (24.7)	78 (27.0)	87 (30.6)	4 (20.0)	251 (28.6)	164 (22.9)	415 (26.0)
불만족스러웠음	15 (5.5)	4 (3.2)	6 (2.4)	4 (3.0)	6 (8.7)	14 (8.9)	22 (7.6)	16 (5.6)	-	57 (6.5)	29 (4.1)	86 (5.4)
매우 불만족스러웠음	6 (2.2)	4 (3.2)	7 (2.8)	2 (1.5)	8 (11.6)	5 (3.2)	12 (4.2)	5 (1.8)	-	32 (3.6)	17 (2.4)	49 (3.1)
검정고시 출신	1 (0.4)	1 (0.8)	3 (1.2)	-	2 (2.9)	3 (1.9)	2 (0.7)	3 (1.1)	-	10 (1.1)	5 (0.7)	15 (0.9)
무 응 답	2 (0.7)	2 (1.6)	2 (0.8)	-	-	2 (1.3)	2 (0.7)	2 (0.7)	-	2 (0.2)	10 (1.4)	12 (0.8)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2-1-1〉 고교생활의 만족도(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매우 만족했음	만족했음	그저 그랬다	불만족스러웠음	매우 불만족스러웠음	기 타
'01	254 (11.4)	1058 (47.4)	670 (30.0)	137 (6.1)	85 (3.8)	27 (1.2)
'02	233 (12.1)	915 (47.4)	573 (29.7)	88 (4.6)	84 (4.4)	36 (1.8)
'03	251 (15.7)	766 (48.1)	415 (26.0)	86 (5.4)	49 (3.1)	27 (1.7)

2-2. 과외지도 경험 여부와 유형

학생이 입시준비를 위해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형태의 과외지도를 받았는가를 알아본 결과, '과외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가 55.2%(전년도 56.2%)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과외지도를 받은 학생의 경우는 '개인지도' 20.1%(전년도 14.5%), '학원 수강' 13.9%(전년도 21.6%), '그룹지도' 5.4%(전년도 2.8%), '입주과외' 0.1%(전년도 0.6%)의 순으로 높았고, '두 가지 형태 이상의 과외지도'를 받은 학생은 1.2%(전년도 1.5%)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개인지도'와 '학원 수강'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2〉 과외지도 경험 여부와 유형

〈단위 : 명(%)〉

경험 여부 및 유형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개 인 지 도		70 (25.7)	30 (24.2)	55 (22.0)	26 (19.5)	19 (27.5)	24 (15.2)	55 (19.0)	40 (14.1)	2 (10.0)	165 (18.8)	155 (21.6)	320 (20.1)
그 룹 지 도		11 (4.0)	7 (5.6)	16 (6.4)	8 (6.0)	2 (2.9)	15 (9.5)	12 (4.2)	14 (4.9)	1 (5.0)	50 (5.7)	36 (5.0)	86 (5.4)
학 원 수 강		34 (12.5)	16 (12.9)	27 (10.8)	17 (12.8)	10 (14.5)	10 (6.3)	54 (18.7)	49 (17.3)	6 (30.0)	106 (12.1)	115 (16.1)	221 (13.9)
입 주 과 외		1 (0.4)	-	-	-	-	-	-	1 (0.4)	-	-	2 (0.3)	2 (0.1)
한 적 없 음		138 (50.7)	65 (52.4)	137 (54.8)	75 (56.4)	34 (49.3)	103 (65.2)	157 (54.3)	163 (57.4)	10 (50.0)	512 (58.3)	368 (51.4)	880 (55.2)
두 형태의 과외		4 (1.5)	-	4 (1.6)	4 (3.0)	1 (1.4)	-	4 (1.4)	2 (0.7)	-	8 (0.9)	11 (1.5)	19 (1.2)
세 형태의 과외		1 (0.4)	-	2 (0.8)	1 (0.8)	-	1 (0.6)	3 (1.0)	-	-	5 (0.6)	3 (0.4)	8 (0.5)
네 형태의 과외		1 (0.4)	-	-	-	1 (1.4)	2 (1.3)	1 (0.3)	-	-	4 (0.5)	1 (0.1)	5 (0.3)
무 응 답		12 (4.4)	6 (4.8)	9 (3.6)	2 (1.5)	2 (2.9)	3 (1.9)	3 (1.0)	15 (5.3)	1 (5.0)	28 (3.2)	25 (3.5)	53 (3.3)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2-2-1〉 과외지도 경험 여부와 유형(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개인 지도	그룹 지도	학원 수강	한 적 없 음	기 타
'01	325 (14.6)	48 (2.2)	371 (16.6)	1388 (62.2)	99 (4.5)
'02	279 (14.5)	54 (2.8)	416 (21.6)	1085 (56.2)	95 (4.9)
'03	320 (20.1)	86 (5.4)	221 (13.9)	880 (55.2)	87 (5.4)

3. 대학생활

3-1. 대학 진학의 목적

대학 진학의 목적을 보면,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36.7%로 전년도 34.3% 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가 23.7%(전년도 25.0%),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가 23.1%(전년도 20.6%) 순으로, 그 외에 '주위의 권유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교양 습득을 위해', '배우자 선택에 유리하므로' 등의 목적에도 15.4%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의 19.6%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생과 농생대생은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 사범대생은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의과대생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또한 남녀별로는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는 남학생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와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는 여학생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대학 진학의 목적

〈단위 : 명(%)〉

구분 진학목적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79 (29.0)	51 (41.1)	107 (42.8)	62 (46.6)	15 (21.7)	64 (40.5)	100 (34.6)	105 (37.0)	5 (25.0)	358 (40.8)	227 (31.7)	585 (36.7)
교양 습득을 위해	7 (2.6)	1 (0.8)	12 (4.8)	1 (0.8)	3 (4.3)	11 (7.0)	7 (2.4)	9 (3.2)	-	30 (3.4)	21 (2.9)	51 (3.2)
주위의 권유에 의해	11 (4.0)	8 (6.5)	17 (6.8)	13 (9.8)	11 (15.9)	15 (9.5)	15 (5.2)	12 (4.2)	1 (5.0)	46 (5.2)	57 (8.0)	103 (6.5)
배우자 선택에 유리하므로	2 (0.7)	-	2 (0.8)	1 (0.8)	3 (4.3)	6 (3.8)	1 (0.3)	2 (0.7)	-	13 (1.5)	4 (0.6)	17 (1.1)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9 (3.3)	7 (5.6)	11 (4.4)	8 (6.0)	8 (11.6)	8 (5.1)	13 (4.5)	9 (3.2)	1 (5.0)	46 (5.2)	28 (3.9)	74 (4.6)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	84 (30.9)	31 (25.0)	49 (19.6)	22 (16.5)	16 (23.2)	20 (12.7)	77 (26.6)	67 (23.6)	5 (25.0)	173 (19.7)	196 (27.4)	369 (23.1)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77 (28.3)	22 (17.7)	52 (20.8)	25 (18.8)	11 (15.9)	31 (19.6)	73 (25.3)	79 (27.8)	8 (40.0)	202 (23.0)	176 (24.6)	378 (23.7)
무응답	3 (1.1)	4 (3.2)	-	1 (0.8)	2 (2.9)	3 (1.9)	3 (1.0)	1 (0.4)	-	10 (1.1)	7 (1.0)	17 (1.1)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3-1-1〉 대학 진학의 목적(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교양 습득을 위해	주위의 권유에 의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	전문적 지식을 습득 하기 위해	배우자 선택에 유리	기 타
'01	674 (30.2)	87 (3.9)	168 (7.5)	105 (4.7)	511 (22.9)	628 (28.1)	28 (1.3)	30 (1.3)
'02	661 (34.3)	92 (4.8)	123 (6.4)	125 (6.5)	398 (20.6)	483 (25.0)	36 (1.9)	11 (0.6)
'03	585 (36.7)	51 (3.2)	103 (6.5)	74 (4.6)	369 (23.1)	378 (23.7)	17 (1.1)	17 (1.1)

3-2 대학생활동 가장 하고 싶은 일

학생이 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보면, '폭 넓은 친구교제' 36.7%(전년도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공공부' 23.7%(전년도 31.1%), '사회활동 참여' 23.1%(전년도 10.4%), '동아리활동' 6.5%(전년도 6.7%), '자격시험 준비' 4.6%(전년도 12.8%), '이성교제' 3.2%(전년도 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은 1.1%(전년도 0.9%)로 나타나 아직까지 대학생활에서 봉사활동의 의미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도 신입생에 비해, '폭넓은 친구교제', '사회활동 참여'에 관심이 높은 반면에, '동아리활동', '자격시험 준비', '이성교제', 등에는 다소 관심을 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대학과 남녀별로 보면, 인문대생과 농생대생은 '사회활동 참여', 법정대생과 경상대생, 사범대생, 해양대생, 자연대생, 공과대생은 '폭 넓은 친구교제', 의과대생은 '전공공부'에 타 대학생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남학생은 '폭 넓은 친구교제', '자격시험 준비'와 '이성교제'에, 여학생은 '전공공부', '사회활동 참여'와 '동아리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3-2〉 대학생활동 가장 하고 싶은 일

〈단위 : 명(%)〉

구 분 하고 싶은 일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폭 넓은 친구교제	79 (29.0)	51 (41.1)	107 (42.8)	62 (46.6)	15 (21.7)	64 (40.5)	100 (34.6)	105 (37.0)	5 (25.0)	358 (40.8)	227 (31.7)	585 (36.7)
이 성 교 제	7 (2.6)	1 (0.8)	12 (4.8)	1 (0.8)	3 (4.3)	11 (7.0)	7 (2.4)	9 (3.2)	-	30 (3.4)	21 (2.9)	51 (3.2)
동 아 리 활 동	11 (4.0)	8 (6.5)	17 (6.8)	13 (9.8)	11 (15.9)	15 (9.5)	15 (5.2)	12 (4.2)	1 (5.0)	46 (5.2)	57 (8.0)	103 (6.5)
교양서적 탐독	2 (0.7)	-	2 (0.8)	1 (0.8)	3 (4.3)	6 (3.8)	1 (0.3)	2 (0.7)	-	13 (1.5)	4 (0.6)	17 (1.1)

구 분 하고 싶은 일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자격시험 준비	9 (3.3)	7 (5.6)	11 (4.4)	8 (6.0)	8 (11.6)	8 (5.1)	13 (4.5)	9 (3.2)	1 (5.0)	46 (5.2)	28 (3.9)	74 (4.6)
사회활동 참여	84 (30.9)	31 (25.0)	49 (19.6)	22 (16.5)	16 (23.2)	20 (12.7)	77 (26.6)	67 (23.6)	5 (25.0)	173 (19.7)	196 (27.4)	369 (23.1)
전 공 공 부	77 (28.3)	22 (17.7)	52 (20.8)	25 (18.8)	11 (15.9)	31 (19.6)	73 (25.3)	79 (27.8)	8 (40.0)	202 (23.0)	176 (24.6)	378 (23.7)
봉 사 활 동	3 (1.1)	4 (3.2)	-	1 (0.8)	2 (2.9)	3 (1.9)	3 (1.0)	1 (0.4)	-	10 (1.1)	7 (1.0)	17 (1.1)
무 응 답	1 (0.4)	-	2 (0.8)	2 (1.5)	-	6 (3.8)	3 (1.0)	1 (0.4)	1 (5.0)	8 (.9)	8 (1.1)	16 (1.0)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3-2-1) 대학생활동 가장 하고 싶은 일(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폭 넓은 친구교제	이성교제	동아리활동	자격시험 준비	사회활동 참여	전공공부	기 타
'01	633 (28.4)	161 (7.2)	178 (8.0)	338 (15.2)	168 (7.5)	657 (29.4)	96 (4.3)
'02	530 (27.5)	156 (8.1)	130 (6.7)	246 (12.8)	200 (10.4)	600 (31.1)	66 (3.5)
'03	585 (36.7)	51 (3.2)	103 (6.5)	74 (4.6)	369 (23.1)	378 (23.7)	50 (3.2)

3-3. 예상되는 문제점

학생이 입학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면, '학교 공부' 36.0%(전년도 3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간 및 생활관리' 31.0%(전년도 33.1%)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간관계' 14.8%(전년도 13.7%), '학자금 조달' 10.5%(전년도 8.6%), '숙식' 3.8%(전년도 5.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학교 공부', '인간관계'와 '학자금 조달'은 높게, '시간 및 생활관리'와 '숙식'은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별로는 '학교 공부'에 의과대생, '시간 및 생활관리'에 자연대생, '인간관계'에 사범대생, '학자금 조달'은 농생대생이 타 대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를 남녀별로 보면, '시간 및 생활관리', '학자금 조달', '숙식' 및 '이성교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학교공부'와 '인간관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예상되는 문제점

〈단위: 명(%)〉

구분 예상되는 문제점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자금 조달 문제	31 (11.4)	10 (8.1)	23 (9.2)	10 (7.5)	13 (18.8)	25 (15.8)	32 (11.1)	23 (8.1)	1 (5.0)	108 (12.3)	59 (8.2)	167 (10.5)
숙 식 문 제	4 (1.5)	2 (1.6)	19 (7.6)	2 (1.5)	3 (4.3)	8 (5.1)	13 (4.5)	10 (3.5)	-	48 (5.5)	13 (1.8)	61 (3.8)
학교공부 문제	114 (41.9)	46 (37.1)	83 (33.2)	55 (41.4)	18 (26.1)	50 (31.6)	93 (32.2)	103 (36.3)	13 (65.0)	283 (32.2)	291 (40.6)	574 (36.0)
시간 및 생활관리 문제	85 (31.3)	42 (33.9)	69 (27.6)	36 (27.1)	22 (31.9)	46 (29.1)	99 (34.3)	94 (33.1)	3 (15.0)	281 (32.0)	213 (29.7)	494 (31.0)
이성교제 문제	5 (1.8)	2 (1.6)	6 (2.4)	1 (0.8)	-	9 (5.7)	8 (2.8)	11 (3.9)	-	34 (3.9)	8 (1.1)	42 (2.6)
인간관계 문제	32 (11.8)	21 (16.9)	46 (18.4)	26 (19.5)	12 (17.4)	15 (9.5)	39 (13.5)	43 (15.1)	3 (15.0)	116 (13.2)	120 (16.8)	236 (14.8)
무 응 답	1 (0.4)	1 (0.8)	4 (1.6)	3 (2.3)	1 (1.4)	5 (3.2)	5 (1.7)	-	-	8 (0.9)	12 (1.7)	20 (1.3)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3-3-1〉 예상되는 문제점(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분 학년도별	학자금 조달 문제	숙식 문제	학교공부 문제	시간 및 생활 관리 문제	이성교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기 타
'01	223 (10.0)	74 (3.3)	787 (35.3)	765 (34.3)	60 (2.7)	289 (13.0)	33 (1.5)
'02	165 (8.6)	100 (5.2)	675 (35.0)	639 (33.1)	67 (3.5)	265 (13.7)	18 (0.9)
'03	167 (10.5)	61 (3.8)	574 (36.0)	494 (31.0)	42 (2.6)	236 (14.8)	20 (1.3)

3-4.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

학생이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를 보면, '취미 분야'가 50.9%(전년도 51.9%)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은 '스포츠 분야' 25.4%(전년도 19.6%), '교양·학술 분야' 4.8%(전년도 7.1%), '봉사 분야' 4.3%(전년도 4.0%)로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고 싶지 않다'고 반응한 학생도 9.7%로 전년도 10.2%에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별로

비교해 보면, 공과대생, 인문대생, 사범대생은 '취미 분야' 에, 해양대생은 '스포츠 분야' 에 타 대학생 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고, 남녀별로는 남학생인 경우에는 '스포츠 분야' 에, 여학생은 '취미 분야', '교양·학술 분야' 와 '봉사 분야' 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하고 싶지 않다' 에도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3-4〉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

〈단위 : 명(%)〉

구 분 활동 분야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교양·학술 분야	21 (7.7)	12 (9.7)	9 (3.6)	12 (9.0)	3 (4.3)	6 (3.8)	11 (3.8)	2 (0.7)	-	41 (4.7)	35 (4.9)	76 (4.8)
스포츠 분야	43 (15.8)	28 (22.6)	60 (24)	21 (15.8)	19 (27.5)	65 (41.2)	88 (30.4)	81 (28.6)	3 (15.0)	306 (34.8)	98 (13.7)	404 (25.4)
취미 분야	147 (54.0)	65 (52.4)	131 (52.4)	70 (52.6)	32 (46.4)	65 (41.1)	135 (46.7)	158 (55.6)	10 (50.0)	385 (43.8)	427 (59.6)	812 (50.9)
종교 분야	5 (1.8)	3 (2.4)	6 (2.4)	1 (0.8)	1 (1.4)	4 (2.5)	5 (1.7)	8 (2.8)	1 (5.0)	19 (2.2)	15 (2.1)	34 (2.1)
지역 및 사회 문제 분야	5 (1.8)	2 (1.6)	7 (2.8)	2 (1.5)	-	4 (2.5)	5 (1.7)	2 (0.7)	-	16 (1.8)	11 (1.5)	27 (1.7)
봉사 분야	13 (4.8)	3 (2.4)	17 (6.8)	12 (9.0)	1 (1.4)	4 (2.5)	12 (4.2)	5 (1.8)	2 (10.0)	23 (2.6)	46 (6.4)	69 (4.3)
하고 싶지 않음	38 (14.0)	10 (8.1)	20 (8.0)	13 (9.8)	13 (18.8)	6 (3.8)	25 (8.7)	26 (9.2)	4 (20.0)	78 (8.9)	77 (10.8)	155 (9.7)
무응답	-	1 (0.8)	-	2 (1.5)	-	4 (2.5)	8 (2.8)	2 (0.7)	-	10 (1.1)	7 (1.0)	17 (1.1)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3-4-1〉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교양·학술 분야	스포츠 분야	취미 분야	봉사 분야	하고 싶지 않음	기 타
'01	186 (8.3)	470 (21.0)	1148 (51.5)	119 (5.3)	215 (9.6)	93 (4.1)
'02	136 (7.1)	426 (22.0)	1002 (51.9)	78 (4.0)	197 (10.2)	90 (4.6)
'03	76 (4.8)	404 (25.4)	812 (50.9)	69 (4.3)	155 (9.7)	78 (4.9)

3-5.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학생이 재학중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에서,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경우가 87.3%로서 가장 많았고, 이는 전년도 신입생의 89.0%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본인', 또는 '교내·외 장학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경우가 11.0%(전년도 9.9%)로 나타났고, 그 외 '친척', '형제',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1.3%(전년도 0.9)로 반응하였다. 비록 국립대학으로서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매우 저렴하지만, 아직도 학생 스스로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단위 : 명(%)〉

구분 부담자	대학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본인	28 (10.3)	11 (8.9)	23 (9.2)	4 (3.0)	9 (13.0)	26 (16.5)	13 (4.5)	12 (4.2)	1 (5.0)	83 (9.5)	43 (6.0)	126 (7.9)
보호자	231 (84.9)	104 (83.9)	214 (85.6)	124 (93.2)	59 (85.5)	123 (77.8)	259 (89.6)	262 (92.3)	19 (95.0)	754 (85.9)	637 (89.0)	1391 (87.3)
친척	1 (0.4)	3 (2.4)	1 (0.4)	1 (0.8)	-	1 (0.6)	-	1 (0.4)	-	6 (0.7)	2 (0.3)	8 (0.5)
형제	2 (0.7)	-	1 (0.4)	-	-	1 (0.6)	2 (0.7)	2 (0.7)	-	4 (0.5)	4 (0.6)	8 (0.5)
조부모	-	-	1 (0.4)	1 (0.8)	-	-	1 (0.3)	1 (0.4)	-	3 (0.3)	1 (0.1)	4 (0.3)
교내장학금	8 (2.9)	5 (4.0)	8 (3.2)	2 (1.5)	-	6 (3.8)	11 (3.8)	5 (1.8)	-	23 (2.6)	22 (3.1)	45 (2.8)
교외장학금	-	1 (0.8)	2 (0.8)	-	-	-	1 (0.3)	1 (0.4)	-	3 (0.3)	2 (0.3)	5 (0.3)
무응답	2 (0.7)	-	-	1 (0.8)	1 (1.4)	1 (0.6)	2 (0.7)	-	-	2 (0.2)	5 (0.7)	7 (0.4)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3-5-1〉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학년도별	본인	보호자	장학금	기타
'01	146 (6.5)	1984 (88.9)	62 (2.7)	39 (1.8)
'02	137 (7.1)	1716 (89.0)	55 (2.8)	21 (1.2)
'03	126 (7.9)	1391 (87.3)	50 (3.1)	27 (1.7)

3-6. 장학금 필요 여부와 이유

장학금의 필요 여부와 이유에 대한 반응으로서,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40.1%(전년도 36.2%)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이 '등록금 충당을 위해'가 39.9%(전년도 41.3%), '생활비 충당을 위해' 9.8%(전년도 11.7%)로 총 89.8%(전년도 89.2%)로 나타나고 있어 재학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신입생은 의과대생(100%), 공과대생(92.3%), 인문대 및 경상대생(각각 92.0%), 해양대생(90.5%), 자연대생(88.6%), 농생대생(86.9%), 법정대생(86.3%), 사범대생(81.3%)의 순이며,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남학생(88.9%) 보다 여학생(90.9%)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6〉 장학금 필요 여부와 이유

〈단위 : 명(%)〉

구 분 필요 여부와 이유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필요 없음	21 (7.7)	13 (10.5)	17 (6.8)	23 (17.3)	8 (11.6)	13 (8.2)	27 (9.3)	20 (7.0)	-	89 (10.1)	52 (7.3)	141 (8.8)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106 (39.0)	42 (33.9)	106 (42.4)	28 (21.1)	32 (46.4)	80 (50.6)	118 (40.8)	120 (42.3)	9 (45.0)	391 (44.5)	248 (34.6)	639 (40.1)
생활비 충당을 위해	25 (9.2)	5 (4.0)	27 (10.8)	11 (8.3)	5 (7.2)	27 (17.1)	28 (9.7)	28 (9.9)	2 (10.0)	94 (10.7)	63 (8.8)	157 (9.8)
등록금 충당을 위해	119 (43.8)	60 (48.4)	97 (38.8)	69 (51.9)	23 (33.3)	36 (22.8)	110 (38.1)	114 (40.1)	9 (45.0)	296 (33.7)	340 (47.5)	636 (39.9)
무 응 답	1 (0.4)	4 (3.2)	3 (1.2)	2 (1.5)	1 (1.4)	2 (1.3)	6 (2.1)	2 (0.7)	-	8 (0.9)	13 (1.8)	21 (1.3)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3-6-1〉 장학금 필요 여부와 이유(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필요 없음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생활비 충당을 위해	등록금 충당을 위해	기 타
'01	157 (7.0)	815 (36.5)	230 (10.3)	979 (43.9)	50 (2.2)
'02	176 (9.1)	699 (36.2)	225 (11.7)	796 (41.3)	33 (1.7)
'03	141 (8.8)	639 (40.1)	157 (9.8)	636 (39.9)	21 (1.3)

3-7. 아르바이트 욕구도

학생들은 대학생활 중에 86.1%(전년도 85.3%)가 아르바이트를 원하며, 별로 관심이 없거나, 생각한 적이 없는 경우가 13.2%(전년도 14.2%)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비교해 보면, 공과대생(89.1%), 인문대생(88.2%), 해양대생(87.4%), 의과대생(85.0%), 농생대생(84.1%), 경상대생(83.6%), 사범대생(83.5%), 법정대생(83.1%)의 순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녀별로는 남학생이 86.7%, 여학생이 85.4%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아르바이트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대학생들을 위한 일자리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7〉 아르바이트 욕구도

〈단위 : 명(%)〉

구분 욕구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절실히 원함	49 (18.0)	12 (9.7)	34 (13.6)	4 (3.0)	14 (20.3)	38 (24.1)	45 (15.6)	40 (14.1)	1 (5.0)	143 (16.3)	92 (12.8)	235 (14.7)
원 함	191 (70.2)	91 (73.4)	175 (70.0)	107 (80.5)	44 (63.8)	100 (63.3)	204 (70.6)	213 (75.0)	16 (80.0)	618 (70.4)	520 (72.6)	1138 (71.4)
별로 관심 없음	26 (9.6)	16 (12.9)	24 (9.6)	18 (13.5)	8 (11.6)	13 (8.2)	25 (8.7)	28 (9.9)	3 (15.0)	84 (9.6)	77 (10.8)	161 (10.1)
생각한 적이 없음	5 (1.8)	5 (4.0)	15 (6.0)	3 (2.3)	2 (2.9)	5 (3.2)	12 (4.2)	3 (1.1)	-	27 (3.1)	23 (3.2)	50 (3.1)
무 응 답	1 (0.4)	-	2 (0.8)	1 (0.8)	1 (1.4)	2 (1.3)	3 (1.0)	-	-	6 (0.7)	4 (0.6)	10 (0.6)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3-7-1〉 아르바이트 욕구도(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학년도별	절실히 원함	원 함	별로 관심 없음	생각한 적이 없음	기 타
'01	402 (18.0)	1571 (70.4)	202 (9.1)	45 (2.0)	11 (0.5)
'02	281 (14.6)	1364 (70.7)	217 (11.2)	58 (3.0)	9 (0.5)
'03	235 (14.7)	1138 (71.4)	161 (10.1)	50 (3.1)	10 (0.6)

3-8.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를 보면, '용돈 마련'이 64.2%(전년도 61.7%)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이 '학비 마련'으로 16.2%(전년도 17.0%), '폭 넓은 사회생활' 13.4%(전년도 1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생계유지'에도 1.6%(전년도 1.0%)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하면, '용돈 마련' 및 '가족의 생계유지'는 증가한 반면에, '학비 마련' 및 '폭 넓은 사회생활'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대학 및 남녀별로 살펴보면, '용돈 마련'은 의과대생이, '학비 마련'은 농생대생이, '폭 넓은 사회생활'과 '가족의 생계유지'에는 해양대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학비 마련', '폭 넓은 사회생활' 및 '가족의 생계유지'에, 여학생은 '용돈 마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3-8〉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

〈단위 : 명(%)〉

원하는 이유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폭 넓은 사회생활	29 (10.7)	14 (11.3)	39 (15.6)	21 (15.8)	4 (5.8)	26 (16.5)	43 (14.9)	37 (13.0)	2 (10.0)	134 (15.3)	79 (11.0)	213 (13.4)
용 돈 마 련	173 (63.6)	85 (68.5)	147 (58.8)	88 (66.2)	41 (59.4)	90 (57.0)	188 (65.1)	199 (70.1)	15 (75.0)	548 (62.4)	475 (66.3)	1023 (64.2)
학 비 마 련	58 (21.3)	16 (12.9)	48 (19.2)	14 (10.5)	17 (24.6)	29 (18.4)	44 (15.2)	32 (11.3)	1 (5.0)	147 (16.7)	112 (15.6)	259 (16.2)
생 계 유 지	2 (0.7)	3 (2.4)	5 (2.0)	2 (1.5)	1 (1.4)	6 (3.8)	3 (1.0)	3 (1.1)	-	16 (1.8)	9 (1.3)	25 (1.6)
무 응 답	10 (3.7)	6 (4.8)	11 (4.4)	8 (6.0)	6 (8.7)	7 (4.4)	11 (3.8)	13 (4.6)	2 (10.0)	33 (3.8)	41 (5.7)	74 (4.6)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3-8-1〉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폭 넓은 사회생활	용돈 마련	학비 마련	생계 유지	기 타
'01	313 (14.0)	1451 (65.0)	352 (15.8)	15 (0.7)	100 (4.5)
'02	318 (16.5)	1190 (61.7)	327 (17.0)	20 (1.0)	74 (3.8)
'03	213 (13.4)	1023 (64.2)	259 (16.2)	25 (1.6)	74 (4.6)

3-9. 재학 중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대한 생각

재학 중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대한 생각을 알아 본 결과,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여건이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겠다'에 42.5%,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고 기회를 찾겠다' 42.1%,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13.2%, '별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1.3%의 순으로 나타나, 84.6%의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대한 경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여건이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겠다'에 의과대생이,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고 기회를 찾겠다'에 경상대생이 가장 높게, 그리고 남녀별로는 남학생(78.0%) 보다 여학생(92.7%)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 재학 중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대한 생각 정도

〈단위: 명(%)〉

구 분 생각 정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고 기회를 찾겠음	137 (50.4)	45 (36.3)	134 (53.6)	52 (39.1)	22 (31.9)	64 (40.5)	121 (41.9)	93 (32.7)	5 (25.0)	340 (38.7)	331 (46.2)	671 (42.1)
여건이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겠음	115 (42.3)	61 (49.2)	85 (34.0)	65 (48.9)	22 (31.9)	54 (34.2)	123 (42.6)	142 (50.0)	13 (65.0)	345 (39.3)	333 (46.5)	678 (42.5)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음	18 (6.6)	15 (12.1)	24 (9.6)	15 (11.3)	20 (29.0)	33 (20.9)	41 (14.2)	43 (15.1)	2 (10.0)	166 (18.9)	44 (6.1)	210 (13.2)
별 의미를 찾을 수 없음	1 (0.4)	1 (0.8)	6 (2.4)	-	4 (5.8)	1 (0.6)	2 (0.7)	5 (1.8)	-	19 (2.2)	1 (0.1)	20 (1.3)
무 응 답	1 (0.4)	2 (1.6)	1 (0.4)	1 (0.8)	1 (1.4)	6 (3.8)	2 (0.7)	1 (0.4)	-	8 (0.9)	7 (1.0)	15 (0.9)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3-10. 원하는 취업 분야

원하는 취업 분야로는 '전문직(의사, 교사, 예술가 등)' 30.6%, '국가기관(행정·기술·외무고시 등)' 19.2%, '대기업이나 국영업체' 17.1%, '자영업(프리랜서, 재택 근무 포함)' 10.9%, '방송·언론계' 6.2%, '벤처기업' 5.0%, '연구소·대학' 4.1%, '외국인 회사' 2.2%, '법조계(사법고시)' 1.5%, '금융계' 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대학과 남녀별로 보면, '전문직(의사, 교사, 예술가 등)'은 의과대생, '국가기관(행정·기술·외무고시 등)'과, '방송·언론계' 및 '법조계(사법고시)'는 법정대생, '대기업이나 국영업체'는 공과대생, '자영업(프리랜서, 재택 근무 포함)'이나 '벤처기업' 및 '연구소·대학'은 농생대생, '외국인 회사'는 인문대생, '금융계'는 경상대생의 순이며, 남학생은 '국가기관(행정·기술·외무고시 등)', '대기업이나 국영업체', '자영업(프리랜서, 재택 근무 포함)', '벤처기업', '법조계

(사법고시) 및 '금융계'를, 여학생은 '전문직(의사, 교사, 예술가 등)', '방송·언론계', '연구소·대학' 및 '외국인 회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원하는 취업 분야

〈단위 : 명(%)〉

구분 원하는 취업 분야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법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대기업, 국영업체	20 (7.4)	7 (5.6)	64 (25.6)	6 (4.5)	3 (4.3)	34 (21.5)	40 (13.8)	98 (34.5)	-	195 (22.2)	77 (10.8)	272 (17.1)
국가기관(행정·기술·외무고시 등)	36 (13.2)	78 (62.9)	54 (21.6)	15 (11.3)	12 (17.4)	38 (24.1)	31 (10.7)	43 (15.1)	1 (5.0)	192 (21.9)	114 (15.9)	306 (19.2)
법조계(사법고시)	3 (1.1)	12 (9.7)	-	-	1 (1.4)	5 (3.2)	1 (0.3)	2 (0.7)	-	17 (1.9)	7 (1.0)	24 (1.5)
방송, 언론계	31 (11.4)	16 (12.9)	11 (4.4)	7 (5.3)	3 (4.3)	10 (6.3)	7 (2.4)	15 (5.3)	-	40 (4.6)	59 (8.2)	99 (6.2)
금융계	-	-	17 (6.8)	-	1 (1.4)	-	5 (1.7)	-	-	15 (1.7)	8 (1.1)	23 (1.4)
외국인 회사	18 (6.6)	-	5 (2.0)	1 (0.8)	1 (1.4)	4 (2.5)	5 (1.7)	2 (0.7)	-	9 (1.0)	26 (3.6)	35 (2.2)
벤처 기업	7 (2.6)	1 (0.8)	14 (5.6)	-	8 (11.6)	11 (7.0)	13 (4.5)	26 (9.2)	-	66 (7.5)	14 (2.0)	80 (5.0)
연구소, 대학	5 (1.8)	-	4 (1.6)	4 (3.0)	11 (15.9)	9 (5.7)	23 (8.0)	9 (3.2)	1 (5.0)	35 (4.0)	31 (4.3)	66 (4.1)
전문직(의사, 교사, 예술가 등)	123 (45.2)	5 (4.0)	41 (16.4)	98 (73.7)	15 (21.7)	22 (13.9)	121 (41.9)	45 (15.8)	18 (90.0)	193 (22.0)	294 (41.1)	487 (30.6)
자영업(프리랜서, 재택 근무 포함)	25 (9.2)	3 (2.4)	34 (13.6)	1 (0.8)	12 (17.4)	18 (11.4)	38 (13.1)	42 (14.8)	-	104 (11.8)	69 (9.6)	173 (10.9)
무응답	4 (1.5)	2 (1.6)	6 (2.4)	1 (0.8)	2 (2.9)	7 (4.4)	5 (1.7)	2 (0.7)	-	12 (1.4)	17 (2.4)	29 (1.8)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3-11.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사항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사항을 알아 본 결과,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 제공' 36.5%, '취업 관련 교육(영어, 컴퓨터, 면접 등)' 28.9%, '진로관련 자기이해 조력(적성, 흥미, 성격 등)' 22.9%, '진로지도 및 상담의 활성화' 5.6%, '시설 확충(도서관, 어학 및 컴퓨터실습실 등)'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과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 제공'은 농생대생이, '진로관련 자기이해 조력(적성, 흥미, 성격 등)'은 자연대생, '취업관련 교육(영어, 컴퓨터, 면접 등)'은 사법

대생, '진로지도 및 상담의 활성화'는 의과대생, '시설 확충(도서관, 어학 및 컴퓨터실습실 등)'은 인문대생의 바램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 제공', '진로관련 자기이해 조력(적성, 흥미, 성격 등)', 및 '진로지도 및 상담의 활성화'에는 남학생이, '취업관련 교육(영어, 컴퓨터, 면접 등)' 및 '시설 확충(도서관, 어학 및 컴퓨터실습실 등)'에는 여학생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표 3-11〉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사항

〈단위 : 명(%)〉

구 분 바라는 사항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 제공	101 (37.1)	42 (33.9)	91 (36.4)	52 (39.1)	29 (42.0)	54 (34.2)	98 (33.9)	110 (38.7)	6 (30.0)	333 (37.9)	249 (34.8)	582 (36.5)
진로관련 자기이해 조 력(적성, 흥미, 성격 등)	53 (19.5)	25 (20.2)	47 (18.8)	16 (12.0)	20 (29.0)	42 (26.6)	93 (32.2)	66 (23.2)	5 (25.0)	213 (24.3)	152 (21.2)	365 (22.9)
취업관련 교육(영어, 컴퓨터, 면접 등)	79 (29.0)	44 (35.5)	82 (32.8)	48 (36.1)	14 (20.3)	45 (28.5)	56 (19.4)	87 (30.6)	6 (30.0)	239 (27.2)	221 (30.9)	460 (28.9)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13 (4.8)	8 (6.5)	16 (6.4)	8 (6.0)	3 (4.3)	7 (4.4)	23 (8.0)	10 (3.5)	2 (10.0)	53 (6.0)	36 (5.0)	89 (5.6)
시설 확충(도서관, 영 어, 컴퓨터 실습실 등)	24 (8.8)	3 (2.4)	10 (4.0)	7 (5.3)	3 (4.3)	2 (1.3)	16 (5.5)	8 (2.8)	1 (5.0)	27 (3.1)	47 (6.6)	74 (4.6)
무 응 답	2 (0.7)	2 (1.6)	4 (1.6)	2 (1.5)	-	8 (5.1)	3 (1.0)	3 (1.1)	-	13 (1.5)	11 (1.5)	24 (1.5)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4. 대학 및 학부(과) 선택

4-1. 본교에 대한 이미지

'제주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아름다운 캠퍼스' 50.3%(전년도 44.0%),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생분위기' 19.6%(전년도 22.9%), '장학금 혜택' 14.2%(전년도 13.7%), '학구적인 분위기' 6.8%(전년도 6.3%), '좋은 학교시설' 4.4%(전년도 5.9%), '우수한 교수진' 1.4%(전년도 1.5%)의 순으로 전년도 신입생과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를 대학별로 보면, 자연대생은 '아름다운 캠퍼스', 법정대생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생분위기', 해양대생은 '장학금 혜택', 농생대생은 '학구적인 분위기', 의과대생은 '좋은 학교시설' 과 '우수한 교수진'에 본교에 대한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남녀별로 보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생분위기', '장학금 혜택', '학구적인 분위기', '좋은 학교시설' 및 '우수한 교수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반응을, '아름다운 캠퍼스'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게 응답하고 있다.

〈표 4-1〉 본교에 대한 이미지

〈단위 : 명(%)〉

본교 이미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구적인 분위기	16 (5.9)	4 (3.2)	13 (5.2)	9 (6.8)	9 (13.0)	18 (11.4)	22 (7.6)	17 (6.0)	-	62 (7.1)	46 (6.4)	108 (6.8)
우수한 교수진	3 (1.1)	-	2 (0.8)	3 (2.3)	2 (2.9)	5 (3.2)	2 (0.7)	5 (1.8)	1 (5.0)	20 (2.3)	3 (0.4)	23 (1.4)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생 분위기	52 (19.1)	38 (30.6)	49 (19.6)	27 (20.3)	16 (23.2)	29 (18.4)	55 (19.0)	46 (16.2)	2 (10.0)	191 (21.8)	122 (17.0)	313 (19.6)
아름다운 캠퍼스	140 (51.5)	62 (50.0)	139 (55.6)	69 (51.9)	28 (40.6)	51 (32.3)	163 (56.4)	139 (48.9)	11 (55.0)	404 (46.0)	397 (55.4)	801 (50.3)
좋은 학교시설	4 (1.5)	2 (1.6)	11 (4.4)	5 (3.8)	5 (7.2)	10 (6.3)	11 (3.8)	21 (7.4)	2 (10.0)	51 (5.8)	19 (2.7)	70 (4.4)
장학금 혜택	48 (17.6)	13 (10.5)	26 (10.4)	16 (12.0)	8 (11.6)	37 (23.4)	24 (8.3)	52 (18.3)	4 (20.0)	126 (14.4)	100 (14.0)	226 (14.2)
무응답	9 (3.3)	5 (4.0)	10 (4.0)	4 (3.0)	1 (1.4)	8 (5.1)	12 (4.2)	4 (1.4)	-	24 (2.7)	29 (4.1)	53 (3.3)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1-1〉 본교에 대한 이미지(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학구적인 분위기	우수한 교수진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생 분위기	아름다운 캠퍼스	좋은 학교시설	장학금 혜택	기 타
'01	72 (3.2)	17 (0.8)	446 (20.0)	1068 (47.9)	156 (7.0)	359 (16.1)	113 (5.1)
'02	122 (6.3)	29 (1.5)	442 (22.9)	848 (44.0)	114 (5.9)	264 (13.7)	110 (5.7)
'03	108 (6.8)	23 (1.4)	313 (19.6)	801 (50.3)	70 (4.4)	226 (14.2)	53 (3.3)

4-2 본교에 대한 인지도

본교를 지원할 때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대강 알고 지원' 한 경우가 59.8%(전년도 58.8%)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르고 지원' 한 경우는 28.1%(전년도 28.4%), '충분히 알고 지원' 한 경우가 6.9%(전년도 6.1%), '전혀 모르고 지원' 한 경우가 4.5%(전년도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하면 '대강 알거나, 충분히 알고 지원' 한 학생은 66.7%(전년도 64.9%)로 증가하였고,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지원' 한 경우가 32.6%(전년도 34.4%)로 감

소하였다. 그리고 이를 대학별로 보면, '대강 알고 지원' 한 경우가 공과대, '잘 모르고 지원' 한 경우는 경상대, '충분히 알고 지원' 한 경우는 의과대, '전혀 모르고 지원' 한 경우는 해양대생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별로 보면, '대강 알고 지원' 한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반응한 반면에,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지원' 한 경우와 '충분히 알고 지원' 한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 본교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본교 인지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혀 모르고 지원함	11 (4.0)	4 (3.2)	12 (4.8)	2 (1.5)	4 (5.8)	12 (7.6)	16 (5.5)	10 (3.5)	-	55 (6.3)	16 (2.2)	71 (4.5)
잘 모르고 지원함	66 (24.3)	37 (29.8)	86 (34.4)	31 (23.3)	22 (31.9)	51 (32.3)	76 (26.3)	75 (26.4)	6 (30.0)	249 (28.4)	199 (27.8)	448 (28.1)
대강 알고 지원함	171 (62.9)	75 (60.5)	140 (56.0)	85 (63.9)	37 (53.6)	79 (50.0)	175 (60.6)	182 (64.1)	12 (60.0)	498 (56.7)	455 (63.5)	953 (59.8)
충분히 알고 지원함	23 (8.5)	5 (4.0)	12 (4.8)	13 (9.8)	6 (8.7)	13 (8.2)	19 (6.6)	17 (6.0)	2 (10.0)	69 (7.9)	41 (5.7)	110 (6.9)
무 응 답	1 (0.4)	3 (2.4)	-	2 (1.5)	-	3 (1.9)	3 (1.0)	-	-	7 (0.8)	5 (0.7)	12 (0.8)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2-1〉 본교에 대한 인지도(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전혀 모르고 지원함	잘 모르고 지원함	대강 알고 지원함	충분히 알고 지원함	기 타
'01	114 (5.1)	736 (33.0)	1269 (56.9)	102 (4.6)	10 (0.4)
'02	115 (6.0)	548 (28.4)	1135 (58.8)	118 (6.1)	13 (0.7)
'03	71 (4.5)	448 (28.1)	953 (59.8)	110 (6.9)	12 (0.8)

4-3. 본교를 지원한 이유

본교를 지원한 주된 이유는 '지역적인 면' 42.2%(전년도 42.3%), '합격 가능성' 30.1%(전년도 31.6%), '경제적인 면' 15.0%(전년도 16.6%), '취업 가능성' 11.5%(전년도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지역적인 면'은 의과대생이, '합격 가능성'은 자연대생이, '경제적인

면'은 사범대생이, '취업 가능성'은 경상대생이 높게 답하였으며,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합격과 취업 가능성을 이유로 본교에 지원하였지만, 여학생은 지역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 본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본교를 지원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원한 이유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지역적인 면	123 (45.2)	58 (46.8)	100 (40.0)	65 (48.9)	23 (33.3)	58 (36.7)	101 (34.9)	134 (47.2)	12 (60.0)	358 (40.8)	315 (44.0)	673 (42.2)
경제적인 면	42 (15.4)	14 (11.3)	39 (15.6)	29 (21.8)	11 (15.9)	29 (18.4)	37 (12.8)	39 (13.7)	1 (5.0)	131 (14.9)	108 (15.1)	239 (15.0)
합격 가능성	87 (32.0)	45 (36.3)	62 (24.8)	28 (21.1)	23 (33.3)	42 (26.6)	106 (36.7)	83 (29.2)	4 (20.0)	268 (30.5)	212 (29.6)	480 (30.1)
취업 가능성	18 (6.6)	6 (4.8)	47 (18.8)	9 (6.8)	11 (15.9)	26 (16.5)	41 (14.2)	25 (8.8)	3 (15.0)	110 (12.5)	74 (10.3)	184 (11.5)
무 응 답	2 (0.7)	1 (0.8)	2 (0.8)	2 (1.5)	1 (1.4)	3 (1.9)	4 (1.4)	3 (1.1)	-	11 (1.3)	7 (1.0)	18 (1.1)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3-1〉 본교를 지원한 이유(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학년도별	지역적인 면	경제적인 면	합격 가능성	취업 가능성	기 타
'01	906 (40.6)	391 (17.5)	794 (35.6)	123 (5.5)	17 (0.8)
'02	816 (42.3)	321 (16.6)	609 (31.6)	170 (8.8)	13 (0.7)
'03	673 (42.2)	239 (15.0)	480 (30.1)	184 (11.5)	18 (1.1)

4-4. 본교 지원시 정보의 수집 경로

본교 지원시 정보의 수집 경로를 보면, '친구와 선배'에게서 33.4%(전년도 31.1%)로 가장 많고, '가족과 친척' 19.4%(전년도 20.9%), '교사' 15.7%(전년도 14.7%), '제주대학교 안내책자' 11.2%(전년도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정보의 수집 경로는 '친구와 선배', '교사', '고교생 초청 대학설명회'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친척', '제주대학교 안내책자', '매스컴', '입시학원 자료'에 의한 수집방법은 전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의과대생과 인문대생은 '가족과 친척', 사범대생은 '교사', 경상대생은 '제주대학교 안내책자',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으며 모든 대학이 친구나 선배에게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은 '친구와 선배', '가족과 친척', '제주대학교 안내책자' 및 '입시학원 자료'에서, 남학생은 '교사', '매스컴' 및 '고교생 초청 대학설명회'의 경로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본교 지원 시 정보의 수집 경로

〈단위 : 명(%)〉

정보의 수집 경로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가 족 , 친 척		43 (15.8)	22 (17.7)	34 (13.6)	26 (19.5)	18 (26.1)	27 (17.1)	66 (22.8)	68 (23.9)	7 (35.0)	169 (19.2)	140 (19.6)	309 (19.4)
친 구 , 선 배		102 (37.5)	45 (36.3)	77 (30.8)	39 (29.3)	19 (27.5)	59 (37.3)	104 (36.0)	79 (27.8)	8 (40.0)	285 (32.5)	247 (34.5)	532 (33.4)
교 사		41 (15.1)	19 (15.3)	33 (13.2)	30 (22.6)	14 (20.3)	32 (20.3)	34 (11.8)	46 (16.2)	2 (10.0)	153 (17.4)	98 (13.7)	251 (15.7)
매 스 컴		16 (5.9)	4 (3.2)	26 (10.4)	4 (3.0)	2 (2.9)	8 (5.1)	14 (4.8)	9 (3.2)	1 (5.0)	52 (5.9)	32 (4.5)	84 (5.3)
제 주 대 학 교 안 내 책 자		23 (8.5)	18 (14.5)	39 (15.6)	19 (14.3)	6 (8.7)	15 (9.5)	22 (7.6)	34 (12.0)	2 (10.0)	75 (8.5)	103 (14.4)	178 (11.2)
고 교 생 초 청 대 학 설 명 회		23 (8.5)	3 (2.4)	3 (1.2)	9 (6.8)	1 (1.4)	3 (1.9)	11 (3.8)	22 (7.7)	-	43 (4.9)	32 (4.5)	75 (4.7)
입 시 학 원 자 료		9 (3.3)	4 (3.2)	11 (4.4)	2 (1.5)	1 (1.4)	-	10 (3.5)	9 (3.2)	-	24 (2.7)	22 (3.1)	46 (2.9)
전 혀 정 보 없 음		12 (4.4)	8 (6.5)	26 (10.4)	2 (1.5)	8 (11.6)	10 (6.3)	21 (7.3)	16 (5.6)	-	71 (8.1)	29 (4.1)	100 (6.3)
무 응 답		3 (1.1)	1 (0.8)	1 (0.4)	2 (1.5)	-	4 (2.5)	7 (2.4)	1 (0.4)	-	6 (0.7)	13 (1.8)	19 (1.2)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4-1〉 본교 지원 시 정보의 수집 경로(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학년도별	구 분	선배, 친척 및 가족 등	진학지도 담당교사	매 스 컴	입시홍보물	본교 대학설명회	입시학원 자료	기 타
'01		1146 (51.3)	267 (12.0)	94 (4.2)	402 (18.0)	34 (1.5)	123 (5.5)	165 (7.4)
'02		1404 (52.1)	284 (14.7)	125 (6.5)	247 (12.8)	24 (1.2)	100 (5.2)	145 (7.5)
'03		841 (52.8)	251 (15.7)	84 (5.3)	178 (11.2)	75 (4.7)	46 (2.9)	119 (7.5)

4-5. 자긍심의 정도

본교에 입학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보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62.1%(전년도 69.2%)인데 반해, '자랑스럽다'는 반응은 35.0%(전년도 27.0%) 정도이고, '부끄럽다'는 학생도 2.2%(전년도 3.4%)나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년도보다 '그저 그렇다'와 '부끄럽다' 반응에는 낮게, '자랑스럽다' 반응에는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매년 본교에 입학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입생들이 증가('00학년도→19.4%, '01학년도→23.2%, '02학년도→27.0%, '03학년도→35.0%)하고 있는데, 이를 대학 및 남녀별로 살펴보면, '그저 그렇다'에는 사범대생이, '자랑스럽다'에는 의과대생, '부끄럽다'고 여기는 학생은 해양대생임을 알 수 있었고, '그저 그렇다'는 반응에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자랑스럽다'와 '부끄럽다'에는 남학생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4-5〉 자긍심의 정도

〈단위 : 명(%)〉

자긍심의 정도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자 랑 스 러 음		101 (37.1)	35 (28.2)	102 (40.8)	34 (25.6)	23 (33.3)	54 (34.2)	114 (39.4)	86 (30.3)	9 (45.0)	309 (35.2)	249 (34.8)	558 (35.0)
그 저 그 령 다		167 (61.4)	86 (69.4)	143 (57.2)	95 (71.4)	45 (65.2)	94 (59.5)	165 (57.1)	189 (66.5)	11 (55.0)	539 (61.4)	451 (63.0)	990 (62.1)
부 끄 러 음		4 (1.5)	2 (1.6)	5 (2.0)	2 (1.5)	1 (1.4)	6 (3.8)	7 (2.4)	8 (2.8)	-	25 (2.8)	10 (1.4)	35 (2.2)
무 응 답		-	1 (0.8)	-	2 (1.5)	-	4 (2.5)	3 (1.0)	1 (0.4)	-	5 (0.6)	6 (0.8)	11 (0.7)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5-1〉 자긍심의 정도(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자랑스러움	그저 그렇다	부끄러움	기 타
'01	518 (23.2)	1630 (73.1)	72 (3.2)	11 (0.5)
'02	520 (27.0)	1334 (69.2)	66 (3.4)	9 (0.5)
'03	558 (35.0)	990 (62.1)	35 (2.2)	11 (0.7)

4-6. 학부(과)에 지망한 동기

학생이 입학한 학부(과)에 지망하게 된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원하긴 하였으나, 성적 때문' 이 42.7%(전년도 42.9%), 그 다음은 '가장 원하던 분야이기 때문' 33.6%(전년도 28.5%), '전혀 원치 않던 분야로 성적 때문' 11.4%(전년도 17.3%), '어느 정도 원하긴 하였으나, 주위 압력 때문' 8.5%(전년도 7.6%), '전혀 원치 않던 분야로 주위 압력 때문' 2.4%(전년도 2.9%)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신입생이 입학한 학부(과)를 선택한 과정 중 84.8%(전년도 79.0%)인 대부분의 학생이 원하던 분야에 지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신입생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혀 원하지 않던 분야에 성적이나, 주위의 압력 때문에 지망하게 된 학생도 13.8%(전년도 20.2%)로, 입학 후 이들 학생은 학업동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대학과 남녀별로 보면, '어느 정도 원하긴 하였으나, 성적 때문' 에는 의과대생이, '가장 원하던 분야이기 때문' 에 인문대생, '전혀 원치 않던 분야로 성적과 주위 압력 때문' 에는 농생대생이, '어느 정도 원하긴 하였으나, 주위 압력 때문' 에는 사범대생이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남학생은 '어느 정도 원하긴 하였으나, 성적 때문' 과 '전혀 원치 않던 분야로 주위 압력 때문' 에, 여학생은 '가장 원하던 분야이기 때문', '전혀 원치 않던 분야로 성적 때문' 및 '어느 정도 원하긴 하였으나, 주위 압력 때문' 에 더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표 4-6〉 학부(과)에 지망한 동기

〈단위 : 명(%)〉

구 분 지망한 동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가장 원하던 분야이기 때문	126 (46.3)	38 (30.6)	109 (43.6)	21 (15.8)	7 (10.1)	29 (18.4)	103 (35.6)	102 (35.9)	4 (20.0)	287 (32.7)	249 (34.8)	536 (33.6)
어느 정도 원하긴 하나, 성적 때문	104 (38.2)	56 (45.2)	98 (39.2)	80 (60.2)	20 (29.0)	65 (41.1)	125 (43.3)	120 (42.3)	13 (65.0)	394 (44.9)	287 (40.1)	681 (42.7)
어느 정도 원하긴 하나 주위 압력 때문	14 (5.1)	19 (15.3)	15 (6.0)	21 (15.8)	9 (13.0)	14 (8.9)	18 (6.2)	26 (9.2)	1 (5.0)	64 (7.3)	72 (10.1)	136 (8.5)
전혀 원치 않던 분야로 성적 때문	23 (8.5)	6 (4.8)	22 (8.8)	9 (6.8)	25 (36.2)	35 (22.2)	35 (12.1)	27 (9.5)	1 (5.0)	96 (10.9)	86 (12.0)	182 (11.4)
전혀 원치 않던 분야로 주위 압력 때문	4 (1.5)	3 (2.4)	4 (1.6)	-	8 (11.6)	8 (5.1)	4 (1.4)	6 (2.1)	1 (5.0)	26 (3.0)	12 (1.7)	38 (2.4)
무 응 답	1 (0.4)	2 (1.6)	2 (0.8)	2 (1.5)	-	7 (4.4)	4 (1.4)	3 (1.1)	-	11 (1.3)	10 (1.4)	21 (1.3)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6-1〉 학부(과)에 지망한 동기(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학년도별	구 분					
	가장 원하던 분야이기 때문	어느 정도 원하긴 하나, 성적 때문	어느 정도 원하긴 하나, 주위 압력 때문	전혀 원치 않던 분야로 성적 때문	전혀 원치 않던 분야와 주위 압력 때문	기 타
'01	657 (29.4)	1002 (44.9)	165 (7.4)	347 (15.6)	48 (2.2)	12 (0.5)
'02	549 (28.5)	827 (42.9)	146 (7.6)	334 (17.3)	56 (2.9)	17 (0.9)
'03	536 (33.6)	681 (42.7)	136 (8.5)	182 (11.4)	38 (2.4)	21 (1.3)

4-7. 학부(과) 선택시 영향을 미친 사람

학부(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을 보면, '본인'이 44.8%(전년도 46.0%)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본인의 학부(과) 선택에 대한 정체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 19.1%(전년도 20.7%), '부모'가 18.6%(전년도 18.7%)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배나 친구'의 경우도 16.6%(전년도 14.2%)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결국 자신의 장래를 짚어질 학부(과)를 선택할 경우,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보다 책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이를 대학별로 보면, '본인'은 경상대생, '교사'는 농생대생, '부모'는 의과대생, '선배나 친구'는 해양대생들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별로는 '본인'인 경우에는 남녀 학생이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교사'와 '선배나 친구'는 남학생이, '부모'는 여학생이 더 높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학부(과) 선택시 영향을 미친 사람

〈단위 : 명(%)〉

선택시 영향을 준 사람	구 분										성 별	계
	대 학 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선 배 , 친 구	36 (13.2)	24 (19.4)	47 (18.8)	9 (6.8)	8 (11.6)	43 (27.2)	45 (15.6)	49 (17.3)	4 (20.0)	155 (17.7)	109 (15.2)	264 (16.6)
교 사	46 (16.9)	18 (14.5)	30 (12.0)	38 (28.6)	21 (30.4)	42 (26.6)	65 (22.5)	44 (15.5)	-	177 (20.2)	127 (17.7)	304 (19.1)
부 모	45 (16.5)	43 (34.7)	39 (15.6)	42 (31.6)	20 (29.0)	22 (13.9)	34 (11.8)	46 (16.2)	8 (40.0)	146 (16.6)	151 (21.1)	297 (18.6)
본 인	143 (52.6)	37 (29.8)	133 (53.2)	43 (32.3)	20 (29.0)	44 (27.8)	143 (49.5)	145 (51.1)	8 (40.0)	393 (44.8)	321 (44.8)	714 (44.8)
무 응 답	2 (0.7)	2 (1.6)	1 (0.4)	1 (0.8)	-	7 (4.4)	2 (0.7)	-	-	7 (0.8)	8 (1.1)	15 (0.9)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7-1〉 학부(과) 선택시 영향을 미친 사람(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선배, 친구	교 사	부 모	본 인	기 타
'01	280 (12.6)	423 (19.0)	423 (19.0)	1092 (48.9)	13 (0.6)
'02	274 (14.2)	400 (20.7)	361 (18.7)	887 (46.0)	7 (0.4)
'03	264 (16.6)	304 (19.1)	297 (18.6)	714 (44.8)	15 (0.9)

4-8. 학부(과) 선택시 고려한 요인

학부(과) 선택시, '취업 전망 때문'에가 30.4%(전년도 28.5%), '자신의 적성 때문'이 21.3%(전년도 21.7%), '학문적 흥미 때문' 19.8%(전년도 16.1%), '입학 가능성 때문' 18.3%(전년도 21.7%),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해' 5.0%(전년도 4.8%), '주위의 압력 때문' 4.0%(전년도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생은 '학문적 흥미 때문'에, 법정대생, 경상대생, 사범대생, 해양대생, 의과대생은 '취업 전망 때문'에 농생대생은 '입학 가능성 때문'에 자연대생과 공과대생은 '자신의 적성 때문'이 학부(과)를 선택할 때 고려한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서 〈표 4-6〉 학부(과)에 지망한 동기 중 '전혀 원치 않던 분야로 성적과 압력 때문', 그리고 〈표 4-12〉 전공과 관련된 직종보유의 희망 여부 중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농생대 신입생이 높은 반응을 나타낸 것은 '입학 가능성'과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녀별로 보면, '취업 전망 때문', '입학 가능성 때문' 및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해'에 남학생이, '자신의 적성 때문', '학문적 흥미 때문' 및 '주위의 압력 때문'은 여학생이 더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4-8〉 학부(과) 선택 시 고려한 요인

〈단위 : 명(%)〉

구 분 고려한 요인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취업 전망 때문	60 (22.1)	59 (47.6)	80 (32.0)	68 (51.1)	16 (23.2)	47 (29.7)	65 (22.5)	77 (27.1)	13 (65.0)	273 (31.1)	211 (29.5)	484 (30.4)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해	6 (2.2)	11 (8.9)	11 (4.4)	5 (3.8)	3 (4.3)	18 (11.4)	15 (5.2)	11 (3.9)	-	57 (6.5)	22 (3.1)	79 (5.0)
학문적 흥미 때문	77 (28.3)	14 (11.3)	53 (21.2)	16 (12.0)	7 (10.1)	19 (12.0)	66 (22.8)	59 (20.8)	5 (25.0)	155 (17.7)	161 (22.5)	316 (19.8)

고려한 요인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입학 가능성 때문	47 (17.3)	18 (14.5)	40 (16.0)	23 (17.3)	28 (40.6)	39 (24.7)	44 (15.2)	53 (18.7)	-	173 (19.7)	118 (16.5)	291 (18.3)
자신의 적성 때문	70 (25.7)	16 (12.9)	55 (22.0)	18 (13.5)	10 (14.5)	12 (7.6)	85 (29.4)	73 (25.7)	2 (10.0)	179 (20.4)	160 (22.3)	339 (21.3)
주위의 압력 때문	10 (3.7)	4 (3.2)	10 (4.0)	2 (1.5)	5 (7.2)	14 (8.9)	9 (3.1)	10 (3.5)	-	29 (3.3)	35 (4.9)	64 (4.0)
무 응 답	2 (0.7)	2 (1.6)	1 (0.4)	1 (0.8)	-	9 (5.7)	5 (1.7)	1 (0.4)	-	12 (1.4)	9 (1.3)	21 (1.3)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8-1〉 학부(과) 선택 시 고려한 요인(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취업 전망 때문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해	학문적 흥미 때문	입학 가능성 때문	자신의 적성 때문	주위의 압력 때문	기 타
'01	647 (29.0)	69 (3.1)	425 (19.0)	527 (23.6)	437 (19.6)	86 (3.9)	40 (1.8)
'02	550 (28.5)	93 (4.8)	311 (16.1)	419 (21.7)	418 (21.7)	103 (5.4)	35 (1.8)
'03	484 (30.4)	79 (5.0)	316 (19.8)	291 (18.3)	339 (21.3)	64 (4.0)	21 (1.3)

4-9.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의 수집 경로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의 수집 경로를 보면, '선배나 친구'가 41.2%(전년도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학의 안내서'가 25.1%(전년도 26.1%), '교사' 19.4%(전년도 20.2%), '전공한 사람' 6.4%(전년도 6.2%), '잡지나 신문'이 6.0%(전년도 7.8%)로 전년도 신입생의 정보 수집 경로의 순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중요한 대학 입학정보를 앞의 〈표 4-4〉 본교 지원 시 정보의 수집 경로에서 처럼 '친구와 선배', '대학의 안내서' 및 '교사'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과 같이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대학별로 보면 '선배나 친구'인 경우는 해양대생, '대학의 안내서'는 공과대생, '교사'는 사범대생, '전공한 사람'은 의과대생, '잡지나 신문'은 경상대생이 가장 큰 수집 경로로 꼽고 있다. 또한, 성별로는 '선배나 친구', '교사' 및 '잡지나 신문'은 남학생이, '대학의 안내서' 및 '전공한 사람'은 여학생이 보다 큰 수집 경로로 나타났다.

〈표 4-9〉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의 수집 경로

〈단위: 명(%)〉

정보의 수집 경로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교 사		53 (19.5)	21 (16.9)	43 (17.2)	42 (31.6)	20 (29.0)	32 (20.3)	48 (16.6)	48 (16.9)	3 (15.0)	180 (20.5)	130 (18.2)	310 (19.4)
선 배, 친구		115 (42.3)	57 (46.0)	91 (36.4)	51 (38.3)	25 (36.2)	79 (50.0)	119 (41.2)	113 (39.8)	9 (45.0)	364 (41.5)	293 (40.9)	657 (41.2)
잡 지, 신문		13 (4.8)	8 (6.5)	24 (9.6)	4 (3.0)	2 (2.9)	5 (3.2)	19 (6.6)	19 (6.7)	1 (5.0)	60 (6.8)	35 (4.9)	95 (6.0)
대학의 안내서		61 (22.4)	34 (27.4)	74 (29.6)	31 (23.3)	17 (24.6)	26 (16.5)	68 (23.5)	86 (30.3)	4 (20.0)	213 (24.3)	187 (26.1)	400 (25.1)
전공한 사람		24 (8.8)	3 (2.4)	14 (5.6)	3 (2.3)	4 (5.8)	9 (5.7)	27 (9.3)	17 (6.0)	3 (15.0)	49 (5.6)	53 (7.4)	102 (6.4)
무 응 답		6 (2.2)	1 (0.8)	4 (1.6)	2 (1.5)	1 (1.4)	7 (4.4)	8 (2.8)	1 (0.4)	-	12 (1.4)	18 (2.5)	30 (1.9)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9-1〉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의 수집 경로(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 분	교 사	선배, 친구	잡지, 신문	대학의 안내서	전공한 사람	기 타
'01	391 (17.5)	787 (35.3)	146 (6.5)	730 (32.7)	133 (6.0)	44 (2.0)
'02	390 (20.2)	724 (37.5)	150 (7.8)	503 (26.1)	119 (6.2)	43 (2.2)
'03	310 (19.4)	657 (41.2)	95 (6.0)	400 (25.1)	102 (6.4)	30 (1.9)

4-10. 지망학부(과) 선택 시기

신입생이 학부(과)를 선택한 시기를 보면, '고교 3~입학원서 접수전' 42.7%(전년도 39.9%)로서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이 '입학원서 접수기간중' 이 41.1%(전년도 42.6%), '고교 1~2학년 말' 11.4%(전년도 11.2%), '중학교, 또는 그 이전' 3.5%(전년도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입학이라는 인생의 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일찍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3~입학원서 접수기간중' 에 임박하여 선택하는 학생이 83.8%로써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적성보다는 성적이나 대학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별로 보면, 법정대생의 경우, '고교 3~입학원서 접수전' 에, 사범대생은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에, 인문대생은

‘고교 1~2학년말’, 의과대생은 ‘중학교, 또는 그 이전’에 타 대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이 ‘입학원서 접수기간중’에, 남학생이 ‘고교 3~입학원서 접수전’, ‘고교 1~2학년말’, 및 ‘중학교, 또는 그 이전’에 학부(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지망학부(과) 선택 시기

〈단위 : 명(%)〉

구 분 선택 시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입학원서 접수 기간 중	99 (36.4)	52 (41.9)	105 (42.0)	63 (47.4)	32 (46.4)	67 (42.4)	119 (41.2)	111 (39.1)	8 (40.0)	345 (39.3)	310 (43.3)	655 (41.1)
고교 3~입학 원서 접수전	118 (43.4)	56 (45.2)	103 (41.2)	53 (39.8)	31 (44.9)	61 (38.6)	125 (43.3)	128 (45.1)	8 (40.0)	386 (44.0)	295 (41.2)	681 (42.7)
고교 1~2학년말	38 (14.0)	12 (9.7)	35 (14.0)	10 (7.5)	2 (2.9)	18 (11.4)	30 (10.4)	35 (12.3)	2 (10.0)	103 (11.7)	78 (10.9)	181 (11.4)
중학교, 또는 그 이전	15 (5.5)	1 (0.8)	4 (1.6)	6 (4.5)	4 (5.8)	4 (2.5)	11 (3.8)	9 (3.2)	2 (10.0)	31 (3.5)	24 (3.4)	55 (3.5)
무 응 답	2 (0.7)	3 (2.4)	3 (1.2)	1 (0.8)	-	8 (5.1)	4 (1.4)	1 (0.4)	-	13 (1.5)	9 (1.3)	22 (1.4)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10-1〉 지망학부(과) 선택 시기(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고교 3~입학원서 접수 전	고교 1~2학년말	중학교, 또는 그 이전	기 타
'01	1004 (45.0)	875 (39.2)	229 (10.3)	103 (4.6)	20 (0.9)
'02	821 (42.6)	770 (39.9)	217 (11.2)	94 (4.9)	27 (1.4)
'03	655 (41.1)	681 (42.7)	181 (11.4)	55 (3.5)	22 (1.4)

4-11. 지망학부(과)에 대한 인지도

학생이 지원하기전 지망학부(과)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대강 알고 있었다’, ‘꽤 알고 있었다’, ‘아주 잘 알고 있었다’가 70.5%(전년도 65.9%)에 불과하며, ‘알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몰랐다’가 28.4%(전년도 33.2%)로서 상당수의 학생이 지망학부(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9학년도 신입생부터 금년도 신입생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망학부(과)에 대해 ‘알았다’가 62.1%→63.0%→63.2%→65.9%→70.5%, ‘몰랐다’가

37.6%→36.2%→36.1%→33.2%→28.4%로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를 점점 많이 갖고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과 남녀별로 이를 살펴보면, '대강 알고 있었다'에 의과대생이, '알지 못한 편이다'는 경상대생, '꽤 알고 있었다'에 해양대생, 그리고 '전혀 몰랐다' 및 '아주 잘 알고 있었다'에 농생대생이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남학생인 경우에는 '꽤 알고 있었다', '전혀 몰랐다' 및 '아주 잘 알고 있었다'에, 여학생은 '대강 알고 있었다' 및 '알지 못한 편이다'에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 4-11〉 지망학부(과)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인 지 도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아주 잘 알고 있었음		8 (2.9)	2 (1.6)	5 (2.0)	1 (0.8)	3 (4.3)	5 (3.2)	11 (3.8)	3 (1.1)	-	26 (3.0)	11 (1.5)	37 (2.3)
꽤 알고 있었음		31 (11.4)	16 (12.9)	24 (9.6)	21 (15.8)	6 (8.7)	26 (16.5)	36 (12.5)	24 (8.5)	1 (5.0)	109 (12.4)	76 (10.6)	185 (11.6)
대강 알고 있었음		173 (63.6)	68 (54.8)	138 (55.2)	82 (61.7)	33 (47.8)	76 (48.1)	155 (53.6)	165 (58.1)	16 (80.0)	487 (55.5)	415 (58.0)	902 (56.6)
알지 못한 편임		46 (16.9)	30 (24.2)	69 (27.6)	26 (19.5)	19 (27.5)	30 (19.0)	66 (22.8)	76 (26.8)	3 (15.0)	186 (21.2)	179 (25.0)	365 (22.9)
전혀 몰랐음		12 (4.4)	6 (4.8)	12 (4.8)	1 (0.8)	8 (11.6)	15 (9.5)	18 (6.2)	16 (5.6)	-	61 (6.9)	27 (3.8)	88 (5.5)
무 응 답		2 (0.7)	2 (1.6)	2 (0.8)	2 (1.5)	-	6 (3.8)	3 (1.0)	-	-	9 (1.0)	8 (1.1)	17 (1.1)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11-1〉 지망학부(과)에 대한 인지도(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아주 잘 알고 있었음	꽤 알고 있었음	대강 알고 있었음	알지 못한 편임	전혀 몰랐음	기 타
'01	41 (1.8)	189 (8.5)	1181 (52.9)	644 (28.9)	161 (7.2)	15 (0.7)
'02	42 (2.2)	226 (11.7)	1003 (52.0)	489 (25.3)	152 (7.9)	17 (0.9)
'03	37 (2.3)	185 (11.6)	902 (56.6)	365 (22.9)	88 (5.5)	17 (1.1)

4-12 전공과 관련된 직종보유의 희망 여부

학생들이 장래에 전공과 관련된 직종을 알아본 결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이나 '전공과 관

련된 직종'에 각각 50.6%와 41.2%로 91.8%(전년도 87.5%)나 반응하고 있어서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택하고자 하는 학생도 7.3%(전년도 11.5%)나 된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01학년도 신입생부터 금년도 신입생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길 바라는 경우가 87.1%→87.5%→91.8% 증가하였으며, 전공과 희망하는 직업이 무관한 경우가 12.0%→11.5%→7.3%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학별로 보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은 의과대, '전공과 관련한 직종'은 법정대, '전공과 무관한 직종'은 농생대 신입생이 다른 대학 신입생에 비해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 4-6> 학부(과)에 지망한 동기중 '전혀 원치 않던 분야로 성적 및 주위 압력 때문'과 <표 4-8> 학부(과) 선택시 고려한 요인중 '입학 가능성'에 농생대 신입생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이 질문에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직종'이나 '전공과 무관한 직종'을, 여학생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전공과 관련된 직종보유의 희망 여부

<단위 : 명(%)>

희망 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공과 무관한 직종	21 (7.7)	6 (4.8)	18 (7.2)	2 (1.5)	13 (18.8)	27 (17.1)	14 (4.8)	15 (5.3)	-	72 (8.2)	44 (6.1)	116 (7.3)
전공과 관련된 직종	95 (34.9)	67 (54.0)	99 (39.6)	58 (43.6)	24 (34.8)	75 (47.5)	112 (38.8)	123 (43.3)	7 (35.0)	394 (44.9)	262 (36.6)	656 (41.2)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	154 (56.6)	49 (39.5)	131 (52.4)	72 (54.1)	32 (46.4)	50 (31.6)	161 (55.7)	145 (51.1)	13 (65.0)	404 (46.0)	402 (56.1)	806 (50.6)
무응답	2 (0.7)	2 (1.6)	2 (0.8)	1 (0.8)	-	6 (3.8)	2 (0.7)	1 (0.4)	-	8 (0.9)	8 (1.1)	16 (1.0)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12-1> 전공과 관련된 직종보유의 희망 여부(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전공과 무관한 직종	전공과 관련된 직종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	기 타
'01	268 (12.0)	890 (39.9)	1053 (47.2)	20 (0.9)
'02	222 (11.5)	746 (38.7)	942 (48.8)	19 (1.0)
'03	116 (7.3)	656 (41.2)	806 (50.6)	16 (1.0)

4-13. 선택한 전공의 계속적 수학 여부

학생이 현재 선택한 전공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보면, '끝까지 계속하겠다'가 56.5%(전년도 51.8%)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원하던 학과를 부전공으로 택하겠다'가 22.0%(전년도 18.8%), '졸업 전에 전과하겠다' 10.8%(전년도 15.7%), '학사편입을 해서 원하던 전공을 하겠다' 3.8%(전년도 5.1%), '다시 입시공부를 하겠다' 3.0%(전년도 4.1%), '대학원을 진학하여 원하던 전공을 하겠다' 2.8%(전년도 3.0%)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와 분포율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반응을 보였으며, 학생들이 비록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42.4%(전년도 46.7%)의 학생은 자신이 원하던 전공을 다시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전공 선택이 바르게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고, 전년도 비해 다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선택한 전공을 계속하겠다'는 경우에 남학생은 58.4%(전년도 51.0%), 여학생은 54.1%(전년도 52.8%)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4.3%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하던 전공을 다시 하겠다'는 경우는 '선택한 전공을 계속하겠다'는 경우와 반대로 여학생이 44.8%, 남학생이 40.6%로 여학생이 4.2% 더 앞서고 있다. 대학별로는 '끝까지 계속하겠다'에 의과대생, '졸업전에 전과하겠다'와 '학사편입을 해서 원하던 전공을 하겠다'는 농생대생, '원하던 학과를 부전공으로 택하겠다'와 '다시 입시공부를 하겠다'에 해양대생이 타 대학생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4-13〉 선택한 전공의 계속적 수학 여부

〈단위 : 명(%)〉

구 분 계속적 수학 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끝까지 계속 하겠음	152 (55.9)	81 (65.3)	148 (59.2)	75 (56.4)	20 (29.0)	60 (38.0)	167 (57.8)	181 (63.7)	19 (95.0)	513 (58.4)	387 (54.1)	900 (56.5)
원하던 학과를 부전공으로 택하겠음	52 (19.1)	26 (21.0)	62 (24.8)	30 (22.6)	18 (26.1)	47 (29.7)	63 (21.8)	52 (18.3)	1 (5.0)	179 (20.4)	172 (24.0)	351 (22.0)
다시 입학공부를 하겠음	6 (2.2)	4 (3.2)	3 (1.2)	6 (4.5)	3 (4.3)	11 (7.0)	7 (2.4)	8 (2.8)	-	31 (3.5)	17 (2.4)	48 (3.0)
졸업 전에 전과 하겠음	39 (14.3)	7 (5.6)	20 (8.0)	10 (7.5)	18 (26.1)	26 (16.5)	24 (8.3)	29 (10.2)	-	87 (9.9)	85 (11.9)	172 (10.8)
학사편입을 해서 원하던 전공을 하겠음	12 (4.4)	2 (1.6)	11 (4.4)	4 (3.0)	7 (10.1)	3 (1.9)	13 (4.5)	9 (3.2)	-	32 (3.6)	29 (4.1)	61 (3.8)
대학원에 진학하여 원하던 전공을 하겠음	10 (3.7)	2 (1.6)	4 (1.6)	5 (3.8)	2 (2.9)	8 (5.1)	12 (4.2)	3 (1.1)	-	28 (3.2)	17 (2.4)	45 (2.8)
무 응 답	1 (0.4)	2 (1.6)	2 (0.8)	3 (2.3)	1 (1.4)	3 (1.9)	3 (1.0)	2 (0.7)	-	8 (0.9)	9 (1.3)	17 (1.1)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4-13-1〉 선택한 전공의 계속적 수학 여부(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끝까지 계속 하겠음	원하던 학과를 부전공으로 택하겠음	졸업전에 전과 하겠음	학사편입을 해서 원하던 전공을 하겠음	기 타
'01	1197 (53.7)	433 (19.4)	289 (13.0)	125 (5.6)	187 (8.4)
'02	999 (51.8)	368 (18.8)	302 (15.7)	98 (5.1)	167 (8.6)
'03	900 (56.5)	351 (22.0)	172 (10.8)	61 (3.8)	110 (6.9)

4-14. 복수전공에 대한 이수 여부

복수전공에 대한 이수 여부 의사를 보면, '의사가 있다' 에 42.3%, '두고 보겠다' 는 40.2%, '의사가 없다' 에 16.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대학 및 남녀별로 보면, 경상대생과 인문대생, 법정대생, 사범대생, 해양대생, 자연대생과 여학생들은 복수전공에 대하여 이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생대생과 공과대생, 의과대생과 남학생들은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4-14〉 복수전공에 대한 이수 여부

〈단위 : 명(%)〉

구 분 복수전공 이수 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있 다	129 (47.4)	53 (42.7)	138 (55.2)	68 (51.1)	27 (39.1)	65 (41.1)	117 (40.5)	80 (28.2)	1 (5.0)	344 (39.2)	331 (46.2)	675 (42.3)
없 다	51 (18.8)	18 (14.5)	19 (7.6)	22 (16.5)	9 (13.0)	29 (18.4)	58 (20.1)	56 (19.7)	6 (30.0)	159 (18.1)	108 (15.1)	267 (16.8)
두고 보겠음	91 (33.5)	51 (41.1)	91 (36.4)	42 (31.6)	33 (47.8)	62 (39.2)	112 (38.8)	147 (51.8)	13 (65.0)	372 (42.4)	269 (37.6)	641 (40.2)
무 응 답	1 (0.4)	2 (1.6)	2 (0.8)	1 (0.8)	-	2 (1.3)	2 (0.7)	1 (0.4)	-	3 (0.3)	8 (1.1)	11 (0.7)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4-15. 복수전공을 택할 경우의 수학할 단과대학

복수전공을 택할 경우에 수강할 단과대학을 알아 본 결과, '사범대' 16.6%, '인문대' 13.7%, '경상대' 10.2%, '공과대' 7.1%, '법정대' 4.6%, '자연대' 3.9%, '의과대' 2.6%, '해양대' 1.3%, '농생대' 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인 경우는 '공과대', '법정대', '자연대', '의과대', '해양대', '농생대' 를, 여학생은 '사범대', '인문대', '경상대' 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학별로 보면 법정대생은 사범대를, 경상대생은 인문대를, 해양대생은 공과대를, 자연대생은 사범대를 수학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인문대생과 사범대생, 공과대생은 복수전공을 택할 경우에 자신의 대학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복수전공을 택할 경우의 수학할 단과대학

〈단위: 명(%)〉

수학할 단과대학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인 문 대		63 (23.2)	17 (13.7)	58 (23.2)	4 (3.0)	9 (13.0)	14 (8.9)	29 (10.0)	25 (8.8)	2 (10.0)	95 (10.8)	124 (17.3)	219 (13.7)
법 정 대		16 (5.9)	10 (8.1)	18 (7.2)	1 (0.8)	1 (1.4)	8 (5.1)	11 (3.8)	9 (3.2)	-	48 (5.5)	25 (3.5)	73 (4.6)
경 상 대		29 (10.7)	14 (11.3)	47 (18.8)	10 (7.5)	7 (10.1)	16 (10.1)	26 (9.0)	15 (5.3)	-	81 (9.2)	82 (11.5)	163 (10.2)
사 범 대		52 (19.1)	24 (19.4)	35 (14.0)	61 (45.9)	8 (11.6)	14 (8.9)	36 (12.5)	34 (12.0)	1 (5.0)	127 (14.5)	138 (19.3)	265 (16.6)
해 양 대		1 (0.4)	2 (1.6)	1 (0.4)	-	2 (2.9)	9 (5.7)	3 (1.0)	2 (0.7)	-	19 (2.2)	1 (0.1)	20 (1.3)
농 생 대		-	-	3 (1.2)	-	2 (2.9)	2 (1.3)	2 (0.7)	3 (1.1)	-	10 (1.1)	2 (0.3)	12 (0.8)
자 연 대		2 (0.7)	1 (0.8)	2 (0.8)	3 (2.3)	8 (11.6)	9 (5.7)	23 (8.0)	13 (4.6)	1 (5.0)	39 (4.4)	23 (3.2)	62 (3.9)
공 과 대		7 (2.6)	3 (2.4)	7 (2.8)	1 (0.8)	7 (10.1)	24 (15.2)	26 (9.0)	38 (13.4)	-	84 (9.6)	29 (4.1)	113 (7.1)
의 과 대		2 (0.7)	-	6 (2.4)	4 (3.0)	1 (1.4)	8 (5.1)	12 (4.2)	9 (3.2)	-	26 (3.0)	16 (2.2)	42 (2.6)
무 용 답		100 (36.8)	53 (42.7)	73 (29.2)	49 (36.8)	24 (34.8)	54 (34.2)	121 (41.9)	136 (47.9)	16 (80.0)	349 (39.7)	276 (38.5)	625 (39.2)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5. 기대하는 교수상 및 대인관계

5-1. 기대하는 교수상

학생이 기대하는 교수상을 보면, '전공학문의 지도를 받고 싶다'가 43.4%(전년도 43.8%)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가 29.9%(전년도 27.1%)의 반응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공 이외의 학문적인 지도를 받고 싶다' 13.5%(전년도 11.9%), '인생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 8.5%(전년도 10.3%),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 3.6%(전년도 3.9%)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비교하면, '전공학문의 지도를 받고 싶다'에 공과대,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 및 '인생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는 의과대, 그리고 '전공

이외의 학문적인 지도를 받고 싶다' 및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 에는 해양대 신입생이 다른 대학 신입생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전공학문의 지도를 받고 싶다',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 및 '전공 이외의 학문적인 지도를 받고 싶다' 에, 남학생은 '인생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 및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 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5-1〉 기대하는 교수상

〈단위 : 명(%)〉

구 분 기대하는 교수상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공학문의 지도	125 (46.0)	56 (45.2)	104 (41.6)	54 (40.6)	21 (30.4)	62 (39.2)	124 (42.9)	143 (50.4)	5 (25.0)	377 (42.9)	314 (43.9)	691 (43.4)
전공 이외의 학문적 지도	33 (12.1)	14 (11.3)	36 (14.4)	16 (12.0)	11 (15.9)	32 (20.3)	44 (15.2)	29 (10.2)	-	118 (13.4)	97 (13.5)	215 (13.5)
인생관에 대한 조언	16 (5.9)	12 (9.7)	18 (7.2)	6 (4.5)	15 (21.7)	12 (7.6)	27 (9.3)	28 (9.9)	4 (20.0)	94 (10.7)	42 (5.9)	136 (8.5)
사회적인 문제 논의	4 (1.5)	3 (2.4)	15 (6.0)	2 (1.5)	4 (5.8)	11 (7.0)	9 (3.1)	8 (2.8)	1 (5.0)	43 (4.9)	14 (2.0)	57 (3.6)
따뜻한 인간적 인 관계 형성	92 (33.8)	37 (29.8)	74 (29.6)	54 (40.6)	18 (26.1)	38 (24.1)	82 (28.4)	72 (25.4)	10 (50.0)	239 (27.2)	238 (33.2)	477 (29.9)
무 응 답	2 (0.7)	2 (1.6)	3 (1.2)	1 (0.8)	-	3 (1.9)	3 (1.0)	4 (1.4)	-	7 (0.8)	11 (1.5)	18 (1.1)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5-1-1〉 기대하는 교수상(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전공학문의 지도	전공 이외의 학문적 지도	인생관에 대한 조언	사회적인 문제 논의	따뜻한 인간적 인 관계 형성	기 타
'01	1049 (47.0)	280 (12.6)	177 (7.9)	49 (2.2)	611 (27.4)	65 (2.9)
'02	845 (43.8)	229 (11.9)	198 (10.3)	76 (3.9)	523 (27.1)	58 (3.0)
'03	691 (43.4)	215 (13.5)	136 (8.5)	57 (3.6)	477 (29.9)	18 (1.1)

5-2 대인관계의 정도

학생의 대인관계를 보면, '원만한 편이다' 는 77.7%(전년도 79.6%), '매우 원만하다' 에 13.6%(전년도 12.4%), '원만치 않다' 는 6.8%(전년도 6.1%), '매우 힘들다' 에 1.1%(전년도 0.8%)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원만한 편'이 91.3%(전년도 92.0%), '원만하지 않은 편'인 경우가 7.9%(전년도 6.9%)로, 이를 남녀별로 보면, '원만한 편'이라고 응답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원만하지 않은 편'이라고 반응한 남학생이 8.8%(전년도 7.7%)로서 여학생의 6.8%(전년도 5.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별로는 사범대생이 가장 원만하다고 응답했고 인문대생이 원만치 못하다고 응답했다.

〈표 5-2〉 대인관계의 정도

〈단위 : 명(%)〉

대인관계의 정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원만함	33 (12.1)	9 (7.3)	44 (17.6)	20 (15.0)	8 (11.6)	28 (17.7)	42 (14.5)	33 (11.6)	-	138 (15.7)	78 (10.9)	216 (13.6)
원만한 편임	203 (74.6)	104 (83.9)	191 (76.4)	107 (80.5)	54 (78.3)	112 (70.9)	225 (77.9)	227 (79.9)	18 (90.0)	659 (75.1)	580 (81.0)	1239 (77.7)
원만치 않음	27 (9.9)	8 (6.5)	9 (3.6)	6 (4.5)	6 (8.7)	14 (8.9)	19 (6.6)	19 (6.7)	2 (10.0)	68 (7.7)	41 (5.7)	109 (6.8)
매우 힘들	6 (2.2)	1 (0.8)	4 (1.6)	-	1 (1.4)	2 (1.3)	2 (0.7)	3 (1.1)	-	10 (1.1)	8 (1.1)	18 (1.1)
무응답	3 (1.1)	2 (1.6)	2 (0.8)	-	-	2 (1.3)	1 (0.3)	2 (0.7)	-	3 (0.3)	9 (1.3)	12 (0.8)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5-2-1〉 대인관계의 정도(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분	매우 원만함	원만한 편임	원만치 않음	매우 힘들	기 타
'01	302 (13.5)	1778 (79.7)	116 (5.2)	15 (0.7)	20 (0.9)
'02	240 (12.4)	1536 (79.6)	118 (6.1)	16 (0.8)	19 (1.0)
'03	216 (13.6)	1239 (77.7)	109 (6.8)	18 (1.1)	12 (0.8)

5-3. 자신의 문제점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점을 보면, '적성 및 진로'가 30.1%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이 '학업' 22.9%, '성격' 11.3%, '대인관계' 10.0%,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비록 이들이 대학생이 되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작

의 '적성 및 진로'와 '학업'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대학과 남녀별로 보면, '적성 및 진로'에서는 사범대생이, '학업'과 '대인관계'에서는 의과대생, '성격'은 공과대생,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양대생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여학생은 '적성 및 진로', '학업', '대인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남학생은 '성격',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이성관계', '건강', '외모', '종교' 및 '성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표 3-3> 입학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나타나는 반응처럼 전혀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3> 자신의 문제점

<단위 : 명(%)>

구 분 자신의 문제점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업 문제	64 (23.5)	27 (21.8)	59 (23.6)	34 (25.6)	9 (13.0)	31 (19.6)	65 (22.5)	70 (24.6)	6 (30.0)	183 (20.8)	182 (25.4)	365 (22.9)
성격 문제	33 (12.1)	14 (11.3)	22 (8.8)	12 (9.0)	7 (10.1)	17 (10.8)	35 (12.1)	38 (13.4)	2 (10.0)	115 (13.1)	65 (9.1)	180 (11.3)
외모 문제	9 (3.3)	3 (2.4)	4 (1.6)	2 (1.5)	1 (1.4)	6 (3.8)	6 (2.1)	13 (4.6)	1 (5.0)	26 (3.0)	19 (2.7)	45 (2.8)
이성 문제	8 (2.9)	4 (3.2)	9 (3.6)	7 (5.3)	3 (4.3)	9 (5.7)	10 (3.5)	16 (5.6)	-	54 (6.2)	12 (1.7)	66 (4.1)
건강 문제	8 (2.9)	4 (3.2)	12 (4.8)	4 (3.0)	6 (8.7)	6 (3.8)	15 (5.2)	11 (3.9)	-	43 (4.9)	23 (3.2)	66 (4.1)
부모와의 관계	10 (3.7)	4 (3.2)	10 (4.0)	2 (1.5)	2 (2.9)	1 (0.6)	10 (3.5)	11 (3.9)	2 (10.0)	27 (3.1)	24 (3.4)	51 (3.2)
종교 문제	2 (0.7)	4 (3.2)	2 (0.8)	1 (0.8)	1 (1.4)	2 (1.3)	3 (1.0)	4 (1.4)	-	12 (1.4)	7 (1.0)	19 (1.2)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20 (7.4)	6 (4.8)	18 (7.2)	4 (3.0)	6 (8.7)	14 (8.9)	13 (4.5)	21 (7.4)	1 (5.0)	68 (7.7)	34 (4.7)	102 (6.4)
적성 및 진로 문제	88 (32.4)	38 (30.6)	79 (31.6)	55 (41.4)	17 (24.6)	43 (27.2)	92 (31.8)	67 (23.6)	2 (10.0)	248 (28.2)	231 (32.3)	479 (30.1)
성 문제	1 (0.4)	-	2 (0.8)	-	2 (2.9)	11 (7.0)	1 (0.3)	1 (0.4)	-	14 (1.6)	4 (0.6)	18 (1.1)
대인관계	23 (8.5)	15 (12.1)	21 (8.4)	11 (8.3)	13 (18.8)	13 (8.2)	33 (11.4)	26 (9.2)	5 (25.0)	67 (7.6)	92 (12.8)	159 (10.0)
무응답	6 (2.2)	5 (4.0)	12 (4.8)	1 (0.8)	2 (2.9)	5 (3.2)	6 (2.1)	6 (2.1)	1 (5.0)	21 (2.4)	23 (3.2)	44 (2.8)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5-3-1〉 자신의 문제점(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학업 문제	성격 문제	외모 문제	이성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경제 문제	적성 및 진로 문제	대인관계	기 타
'01	605 (27.1)	211 (9.5)	84 (3.8)	105 (4.7)	60 (2.7)	128 (5.7)	714 (32.0)	136 (6.1)	188 (8.4)
'02	429 (22.2)	170 (8.8)	77 (4.0)	71 (3.7)	88 (4.6)	115 (6.0)	677 (35.1)	160 (8.3)	142 (7.3)
'03	365 (22.9)	180 (11.3)	45 (2.8)	66 (4.1)	66 (4.1)	102 (6.4)	479 (30.1)	159 (10.0)	132 (8.3)

5-4. 문제의 의논 상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상대로는 '친구'가 50.3%(전년도 54.3%)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본인'이 17.3%(전년도 17.1%), '어머니' 15.4%(전년도 11.8%), '형제나 친척' 8.5%(전년도 8.3%), '아버지' 4.8%(전년도 3.6%)의 순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은 '친구'나 '어머니', '형제·친척'과 의논을 하는 반면에 남학생은 '아버지', '선배'를 의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에 남학생이 21.2%(전년도 20.4%)로, 여학생 12.6%(전년도 12.8%)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남학생이 보다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4〉 문제의 의논 상대

〈단위 : 명(%)〉

구 분 의논 상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아 버 지	11 (4.0)	7 (5.6)	21 (8.4)	3 (2.3)	-	12 (7.6)	10 (3.5)	11 (3.9)	1 (5.0)	64 (7.3)	12 (1.7)	76 (4.8)
어 머 니	43 (15.8)	13 (10.5)	44 (17.6)	22 (16.5)	18 (26.1)	21 (13.3)	43 (14.9)	38 (13.4)	3 (15.0)	109 (12.4)	136 (19.0)	245 (15.4)
친 구	139 (51.1)	68 (54.8)	129 (51.6)	74 (55.6)	28 (40.6)	71 (44.9)	148 (51.2)	139 (48.9)	9 (45.0)	431 (49.1)	370 (51.7)	801 (50.3)
교 사	3 (1.1)	1 (0.8)	1 (0.4)	-	2 (2.9)	1 (0.6)	2 (0.7)	-	-	5 (0.6)	5 (0.7)	10 (0.6)
선 배	5 (1.8)	1 (0.8)	-	-	-	4 (2.5)	2 (0.7)	3 (1.1)	-	11 (1.3)	4 (0.6)	15 (0.9)
상 담 교 사	1 (0.4)	1 (0.8)	4 (1.6)	1 (0.8)	1 (1.4)	4 (2.5)	2 (0.7)	4 (1.4)	-	13 (1.5)	4 (0.6)	17 (1.1)
형 제 , 친 척	21 (7.7)	6 (4.8)	12 (4.8)	12 (9.0)	8 (11.6)	12 (7.6)	29 (10.0)	31 (10.9)	5 (25.0)	53 (6.0)	83 (11.6)	136 (8.5)
본 인 스스로	47 (17.3)	25 (20.2)	34 (13.6)	20 (15.0)	12 (17.4)	31 (19.6)	51 (17.6)	54 (19.0)	2 (10.0)	186 (21.2)	90 (12.6)	276 (17.3)

의는 상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무 응 답	2 (0.7)	2 (1.6)	5 (2.0)	1 (0.8)	-	2 (1.3)	2 (0.7)	4 (1.4)	-	6 (0.7)	12 (1.7)	18 (1.1)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5-4-1〉 문제의 의는 상대(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아 버 지	어 머 니	친 구	본인 스스로	기 타
'01	81 (3.6)	266 (11.9)	1234 (55.3)	422 (18.9)	228 (10.2)
'02	70 (3.6)	228 (11.8)	1047 (54.3)	329 (17.1)	255 (13.2)
'03	76 (4.8)	245 (15.4)	801 (50.3)	276 (17.3)	196 (12.2)

5-5. 이성친구의 유무 여부

신입생들의 이성친구를 알아본 결과, '이성친구가 없다' 59.8%(전년도 61.7%), '꾸준히 만나는 이성친구가 있다' 18.9%(전년도 14.7%), '자주 만나지는 않으나 이성친구가 있다' 18.3%(전년도 22.1%)의 순으로 반응을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볼 때 37.2%(전년도 36.8%)의 학생들이 이성친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이 40.1%(전년도 38.5%)로 여학생의 33.5%(전년도 34.8%) 보다 이성친구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5년간('99학년도부터 '03학년도까지) 신입생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성친구를 사귀는 학생은 29.5%→31.7%→33.2%→36.8%→37.2%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학교에서는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생활에서의 건전한 이성교제와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5〉 이성친구의 유무 여부

〈단위 : 명(%)〉

이성친구 유무 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꾸준히 만나는 이성친구가 있음	57 (21.0)	25 (20.2)	49 (19.6)	17 (12.8)	12 (17.4)	39 (24.7)	61 (21.1)	43 (15.1)	1 (5.0)	184 (21.0)	117 (16.3)	301 (18.9)
자주 만나지 않으나 이성친구가 있음	41 (15.1)	22 (17.7)	43 (17.2)	28 (21.1)	13 (18.8)	31 (19.6)	57 (19.7)	53 (18.7)	3 (15.0)	168 (19.1)	123 (17.2)	291 (18.3)

구 분 이성친구 유무 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이성친구가 없음	170 (62.5)	73 (58.9)	141 (56.4)	87 (65.4)	41 (59.4)	81 (51.3)	165 (57.1)	182 (64.1)	15 (75.0)	502 (57.2)	451 (63.0)	953 (59.8)
무 응 답	4 (1.5)	4 (3.2)	17 (6.8)	1 (0.8)	3 (4.3)	7 (4.4)	6 (2.1)	6 (2.1)	1 (5.0)	24 (2.7)	25 (3.5)	49 (3.1)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5-5-1〉 이성친구의 유무 여부(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꾸준히 만나는 이성친구가 있음	자주 만나지 않으나, 이성친구가 있음	이성친구가 없음	기 타
'01	283 (12.7)	457 (20.5)	1465 (65.7)	26 (1.2)
'02	284 (14.7)	427 (22.1)	1191 (61.7)	27 (1.4)
'03	301 (18.9)	291 (18.3)	953 (59.8)	49 (3.1)

5-6. 이성교제 시 성관계의 허용 여부

이성교제 시 성관계의 허용 여부를 알아 본 결과, '잘 모르겠다' 32.2%, '사랑한다면 가능하다' 24.0%, '절대로 안된다' 22.1%, '결혼을 전제로 가능하다' 19.8%의 순으로 반응하였으며, 대학별로 보면 해양대생은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인문대생과 의과대생은 절대 안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대학들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들은 56.0%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학생들은 '절대로 안된다'는 응답이 37.2%로 남녀의 차이를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

〈표 5-6〉 이성교제시 성관계의 허용 여부

〈단위 : 명(%)〉

구 분 성관계 허용 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사 랑 한 다 면 가 능 합	47 (17.3)	31 (25.0)	49 (19.6)	15 (11.3)	20 (29.0)	66 (41.8)	80 (27.7)	75 (26.4)	1 (5.0)	309 (35.2)	73 (10.2)	382 (24.0)
결 혼 을 전 제 로 는 가 능 합	55 (20.2)	31 (25.0)	49 (19.6)	27 (20.3)	9 (13.0)	24 (15.2)	55 (19.0)	66 (23.2)	1 (5.0)	183 (20.8)	132 (18.4)	315 (19.8)
절 대 안 됨	88 (32.4)	26 (21.0)	54 (21.6)	40 (30.1)	17 (24.6)	26 (16.5)	53 (18.3)	37 (13.0)	12 (60.0)	86 (9.8)	266 (37.2)	352 (22.1)

성관계 허용 여부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잘 모름		78 (28.7)	32 (25.8)	90 (36.0)	50 (37.6)	23 (33.3)	38 (24.1)	96 (33.2)	100 (35.2)	6 (30.0)	287 (32.7)	226 (31.6)	513 (32.2)
무 응답		4 (1.5)	4 (3.2)	8 (3.2)	1 (.8)	-	4 (2.5)	5 (1.7)	6 (2.1)	-	13 (1.5)	19 (2.7)	32 (2.0)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6. 사회 관

6-1. 사회에서의 성공 요인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는 '노력' 39.1%(전년도 36.8%)로 가장 높은 반응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실력'에 29.2%(전년도 30.6%), '인간관계' 9.3%(전년도 10.5%), '가문·배경' 6.0%(전년도 4.9%), '학벌' 4.1%(전년도 4.0%), '인격' 4.0%(전년도 4.6%), '재력' 3.5%(전년도 4.3%), '운' 3.1%(전년도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대학별로 보면, '노력'은 의과대, '실력' 사범대, '인간관계', '운' 및 '가문·배경'은 해양대, '학벌' 법정대와 경상대, '인격'은 인문대, '재력' 농생대 신입생이 다른 대학 신입생 보다 큰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남녀별로 보면, '노력'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보는 견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하게 39.1%(전년도 남학생 36.9%, 여학생 36.7%)이며, '인간관계', '가문·배경', '재력' 및 '운'은 남학생이, '실력', '학벌' 및 '인격'에서는 여학생 더 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로 전년도 신입생의 필수조건과 다소 차이(전년도는 '노력', '실력'의 순이었음)를 나타나고 있다.

〈표 6-1〉 사회에서의 성공 요인

〈단위 : 명(%)〉

성공 요인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 별		6 (2.2)	7 (5.6)	14 (5.6)	3 (2.3)	3 (4.3)	7 (4.4)	10 (3.5)	14 (4.9)	1 (5.0)	32 (3.6)	33 (4.6)	65 (4.1)
가 문 , 배 경		14 (5.1)	9 (7.3)	12 (4.8)	5 (3.8)	4 (5.8)	15 (9.5)	13 (4.5)	25 (8.8)	-	64 (7.3)	31 (4.3)	95 (6.0)
실 력		85 (31.3)	37 (29.8)	88 (35.2)	57 (42.9)	11 (15.9)	25 (15.8)	78 (27.0)	83 (29.2)	5 (25.0)	214 (24.4)	252 (35.2)	466 (29.2)
인 격		17 (6.3)	2 (1.6)	11 (4.4)	6 (4.5)	4 (5.8)	3 (1.9)	15 (5.2)	6 (2.1)	-	35 (4.0)	29 (4.1)	64 (4.0)
인 간 관 계		26 (9.6)	9 (7.3)	20 (8.0)	9 (6.8)	8 (11.6)	20 (12.7)	28 (9.7)	29 (10.2)	-	112 (12.8)	37 (5.2)	149 (9.3)

구분 성공 요인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운	5 (1.8)	4 (3.2)	4 (1.6)	4 (3.0)	3 (4.3)	16 (10.1)	6 (2.1)	8 (2.8)	-	35 (4.0)	15 (2.1)	50 (3.1)
노	104 (38.2)	50 (40.3)	89 (35.6)	46 (34.6)	32 (46.4)	64 (40.5)	119 (41.2)	106 (37.3)	13 (65.0)	343 (39.1)	280 (39.1)	623 (39.1)
재	10 (3.7)	3 (2.4)	8 (3.2)	2 (1.5)	4 (5.8)	4 (2.5)	15 (5.2)	8 (2.8)	1 (5.0)	33 (3.8)	22 (3.1)	55 (3.5)
무	5 (1.8)	3 (2.4)	4 (1.6)	1 (0.8)	-	4 (2.5)	5 (1.7)	5 (1.8)	-	10 (1.1)	17 (2.4)	27 (1.7)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6-1-1〉 사회에서의 성공 요인(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명(%)〉

구분 학년도별	가문·배경	실 령	인간관계	노 령	학 별	재 령	기 타
'01	96 (4.3)	840 (37.7)	195 (8.7)	750 (33.6)	102 (4.6)	69 (3.1)	179 (8.1)
'02	94 (4.9)	590 (30.6)	202 (10.5)	710 (36.8)	77 (4.0)	83 (4.3)	173 (9.0)
'03	95 (6.0)	466 (29.2)	149 (9.3)	623 (39.1)	65 (4.1)	55 (3.5)	141 (8.8)

6-2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빈부의 격차' 24.3%(전년도 17.9%), '사치 및 부정부패' 19.2%(전년도 24.9%), '정치인에 대한 불신' 15.6%(전년도 24.7%), '경제' 15.1%(전년도 14.3%), '사회질서' 9.4%(전년도 6.6%), '북한과의 관계' 6.0%, '상호 불신' 4.4%(전년도 5.8%), '청소년 비행' 3.8%(전년도 4.1%)의 순으로 들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빈부의 격차', '경제' 및 '사회질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대학별로는 사범대생은 '사치 및 부정부패', 농생대생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 공과대생은 '경제 문제', 그 외의 다른 대학들은 '빈부의 격차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빈부의 격차', '사치 및 부정부패' 및 '사회질서'에는 여학생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 '경제 문제', '북한과의 관계', '상호 불신', '청소년 비행'에는 남학생이 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단위 : 명(%)〉

구 분 당면한 문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경 제 문 제	42 (15.4)	15 (12.1)	35 (14.0)	10 (7.5)	8 (11.6)	18 (11.4)	53 (18.3)	58 (20.4)	2 (10.0)	148 (16.9)	92 (12.8)	240 (15.1)
빈부의 격차 문제	69 (25.4)	30 (24.2)	75 (30.0)	28 (21.1)	12 (17.4)	48 (30.4)	66 (22.8)	54 (19.0)	6 (30.0)	211 (24.0)	176 (24.6)	387 (24.3)
정치인에 대한 불신 문제	36 (13.2)	20 (16.1)	34 (13.6)	25 (18.8)	16 (23.2)	22 (13.9)	49 (17.0)	46 (16.2)	2 (10.0)	138 (15.7)	111 (15.5)	249 (15.6)
청소년 비행 문제	7 (2.6)	6 (4.8)	6 (2.4)	4 (3.0)	6 (8.7)	13 (8.2)	7 (2.4)	9 (3.2)	2 (10.0)	36 (4.1)	24 (3.4)	60 (3.8)
사회질서(범죄·교통) 문제	30 (11.0)	13 (10.5)	14 (5.6)	12 (9.0)	6 (8.7)	14 (8.9)	29 (10.0)	31 (10.9)	2 (10.0)	79 (9.0)	71 (9.9)	150 (9.4)
사치 및 부정 부패 문제	50 (18.4)	25 (20.2)	57 (22.8)	33 (24.8)	7 (10.1)	20 (12.7)	62 (21.5)	49 (17.3)	4 (20.0)	151 (17.2)	155 (21.6)	306 (19.2)
상호불신 문제	17 (6.3)	3 (2.4)	6 (2.4)	11 (8.3)	4 (5.8)	1 (0.6)	11 (3.8)	16 (5.6)	1 (5.0)	40 (4.6)	30 (4.2)	70 (4.4)
북한과의 관계 문제	15 (5.5)	7 (5.6)	17 (6.8)	9 (6.8)	8 (11.6)	17 (10.8)	8 (2.8)	14 (4.9)	1 (5.0)	59 (6.7)	37 (5.2)	96 (6.0)
무 응 답	6 (2.2)	5 (4.0)	6 (2.4)	1 (0.8)	2 (2.9)	5 (3.2)	4 (1.4)	7 (2.5)	-	16 (1.8)	20 (2.8)	36 (2.3)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6-2-1〉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경제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	정치인에 대한 불신 문제	사치 및 부정 부패 문제	기 타
'01	503 (22.5)	358 (16.0)	496 (22.2)	463 (20.8)	411 (18.4)
'02	275 (14.3)	345 (17.9)	477 (24.7)	480 (24.9)	352 (18.3)
'03	240 (15.1)	387 (24.3)	249 (15.6)	306 (19.2)	412 (25.9)

6-3. 제주도민이 겪는 문제점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역개발'에 24.2%(전년도 34.7%), '농업' 17.6%(전년도 6.0%), '문화의 낙후성' 16.8%(전년도 20.6%), '국제자유도시 개발' 10.0%, '환경 보존'

7.5%(전년도 9.7%), '교육' 5.1%(전년도 7.4%), '상공업의 약화' 3.1%(전년도 3.6%), '청소년 비행' 2.5%(전년도 3.0%), '교통' 2.3%(전년도 3.8%)의 순으로, 이러한 결과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생, 법정대생, 경상대생, 해양대생, 자연대생, 공과대생은 '지역개발' 문제를, 사범대생과 의과대생은 '문화의 낙후성'을, 농생대생은 '농업문제'를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남녀별로 보면, '지역개발', '국제자유도시 개발', '환경 보존', '상공업의 약화', '청소년 비행' 및 '교통'은 남학생이, '문화의 낙후성'과 '교육문제'는 여학생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은 남·녀 학생이 거의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몇 년간 감귤 농업 등에 관련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3〉 제주도민이 겪는 문제점

〈단위 : 명(%)〉

구 분 겪는 문제점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청소년 비행 문제	5 (1.8)	3 (2.4)	5 (2.0)	1 (0.8)	-	12 (7.6)	12 (4.2)	2 (0.7)	-	32 (3.6)	8 (1.1)	40 (2.5)
지역개발 문제	65 (23.9)	39 (31.5)	56 (22.4)	29 (21.8)	15 (21.7)	33 (20.9)	70 (24.2)	76 (26.8)	3 (15.0)	227 (25.9)	158 (22.1)	385 (24.2)
상공업의 약화	10 (3.7)	3 (2.4)	6 (2.4)	3 (2.3)	2 (2.9)	7 (4.4)	10 (3.5)	8 (2.8)	1 (5.0)	32 (3.6)	17 (2.4)	49 (3.1)
교통 문제	4 (1.5)	5 (4.0)	2 (0.8)	5 (3.8)	2 (2.9)	5 (3.2)	6 (2.1)	7 (2.5)	-	25 (2.8)	11 (1.5)	36 (2.3)
문화의 낙후성 문제	63 (23.2)	24 (19.4)	33 (13.2)	29 (21.8)	6 (8.7)	12 (7.6)	48 (16.6)	47 (16.5)	6 (30.0)	103 (11.7)	164 (22.9)	267 (16.8)
환경보존 문제	20 (7.4)	6 (4.8)	15 (6.0)	9 (6.8)	2 (2.9)	22 (13.9)	15 (5.2)	29 (10.2)	1 (5.0)	72 (8.2)	47 (6.6)	119 (7.5)
교육 문제	14 (5.1)	3 (2.4)	8 (3.2)	7 (5.3)	1 (1.4)	3 (1.9)	19 (6.6)	23 (8.1)	3 (15.0)	36 (4.1)	45 (6.3)	81 (5.1)
농업 문제	47 (17.3)	16 (12.9)	46 (18.4)	23 (17.3)	19 (27.5)	30 (19.0)	43 (14.9)	53 (18.7)	5 (25.0)	157 (17.9)	124 (17.3)	281 (17.6)
국제자유도시 개발 문제	27 (9.9)	16 (12.9)	24 (9.6)	22 (16.5)	11 (15.9)	12 (7.6)	26 (9.0)	22 (7.7)	1 (5.0)	91 (10.4)	69 (9.6)	160 (10.0)
제주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	7 (2.6)	5 (4.0)	47 (18.8)	4 (3.0)	11 (15.9)	18 (11.4)	31 (10.7)	9 (3.2)	-	90 (10.3)	42 (5.9)	132 (8.3)
무응답	10 (3.7)	4 (3.2)	8 (3.2)	1 (0.8)	-	4 (2.5)	9 (3.1)	8 (2.8)	-	13 (1.5)	31 (4.3)	44 (2.8)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6-3-1〉 제주도민이 겪는 문제점(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학년도별	지역개발 문제	문화시설의 낙후성 문제	교육문제	농업 문제	국제자유도시 개발문제	기 타
'01	783 (35.1)	594 (26.6)	115 (5.2)	126 (5.6)		613 (27.5)
'02	670 (34.7)	397 (20.6)	143 (7.4)	115 (6.0)		604 (31.4)
'03	385 (24.2)	267 (16.8)	81 (5.1)	281 (17.6)	160 (10.0)	420 (26.5)

7. 상담·봉사센터 이용

7-1. 상담 여부

학생이 개인 문제가 있을 경우, 상담·봉사센터에 상담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받고 싶다'가 58.0% (전년도 51.9%)로 '받고 싶지 않다' 39.5%(전년도 44.9%)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이 6.1%(51.9%→58.0%) 증가하긴 하였으나,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학생이 39.5%로 좀 더 상담·봉사센터의 홍보와 상담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대학 및 남녀별로 보면, '받고 싶다'에 경상대생이, '받고 싶지 않다'에 공과대생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그 반면에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학생은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1〉 상담 여부

〈단위 : 명(%)〉

구 분 상담 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받고 싶 음	152 (55.9)	81 (65.3)	164 (65.6)	84 (63.2)	37 (53.6)	87 (55.1)	160 (55.4)	149 (52.5)	13 (65.0)	499 (56.8)	426 (59.5)	925 (58.0)
받고 싶지 않 음	112 (41.2)	41 (33.1)	77 (30.8)	47 (35.3)	30 (43.5)	68 (43.0)	119 (41.2)	131 (46.1)	7 (35.0)	364 (41.5)	265 (37.0)	629 (39.5)
무 응 답	8 (2.9)	2 (1.6)	9 (3.6)	2 (1.5)	2 (2.9)	3 (1.9)	10 (3.5)	4 (1.4)	-	15 (1.7)	25 (3.5)	40 (2.5)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7-1-1〉 상담 여부(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음	기 타
'01	1209 (54.2)	969 (43.4)	53 (2.4)
'02	1002 (51.9)	856 (44.4)	71 (3.7)
'03	925 (58.0)	629 (39.5)	40 (2.5)

7-2 원하는 상담 내용

학생이 원하는 상담내용을 보면, '취업'이 24.9%(전년도 26.2%)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진학' 18.3%(전년도 22.1%), '교우 및 대인관계' 9.1%(전년도 7.3%), '학교생활 적응' 8.6%(전년도 9.5%), '해외유학' 7.8%(전년도 6.4%), '성격' 7.0%(전년도 4.3%), '가정' 2.1%(전년도 2.1%), '이성 및 성' 1.8%(전년도 1.7%), '종교' 1.2%(전년도 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비해 '교우 및 대인관계', '해외유학', '성격' 등이 높은 반응을 보였다. 대학별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취업'에 관한 상담을 원했고 농생대생은 '진학', 의과대생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취업', '교우 및 대인관계', '학교생활 적응', '성격', '가정', '이성 및 성', '종교' 등은 남학생이, '진학', '해외유학'은 여학생이 높은 반응을 보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담내용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7-2〉 원하는 상담 내용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성 격 문 제	13 (4.8)	10 (8.1)	15 (6.0)	10 (7.5)	4 (5.8)	17 (10.8)	19 (6.6)	24 (8.5)	1 (5.0)	79 (9.0)	33 (4.6)	112 (7.0)
교 우 및 대 인 관 계 문 제	26 (9.6)	13 (10.5)	20 (8.0)	9 (6.8)	11 (15.9)	13 (8.2)	24 (8.3)	27 (9.5)	2 (10.0)	86 (9.8)	59 (8.2)	145 (9.1)
가 정 문 제	8 (2.9)	2 (1.6)	3 (1.2)	2 (1.5)	2 (2.9)	4 (2.5)	5 (1.7)	6 (2.1)	1 (5.0)	19 (2.2)	14 (2.0)	33 (2.1)
학 교 생 활 적 응 문 제	22 (8.1)	14 (11.3)	19 (7.6)	8 (6.0)	10 (14.5)	15 (9.5)	23 (8.0)	20 (7.0)	6 (30.0)	77 (8.8)	60 (8.4)	137 (8.6)
종 교 문 제	-	2 (1.6)	3 (1.2)	-	-	7 (4.4)	4 (1.4)	3 (1.1)	-	16 (1.8)	3 (0.4)	19 (1.2)
이 성 및 성 문 제	1 (0.4)	-	2 (0.8)	3 (2.3)	1 (1.4)	7 (4.4)	5 (1.7)	9 (3.2)	1 (5.0)	24 (2.7)	5 (0.7)	29 (1.8)
진 학 문 제	45 (16.5)	21 (16.9)	51 (20.4)	28 (21.1)	14 (20.3)	31 (19.6)	55 (19.0)	45 (15.8)	3 (15.0)	152 (17.3)	140 (19.6)	292 (18.3)

원하는 상담 내용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해외유학 문제		40 (14.7)	4 (3.2)	27 (10.8)	10 (7.5)	2 (2.9)	7 (4.4)	17 (5.9)	17 (6.0)	1 (5.0)	43 (4.9)	81 (11.3)	124 (7.8)
취업 문제		55 (20.2)	33 (26.6)	73 (29.2)	32 (24.1)	13 (18.8)	42 (26.6)	73 (25.3)	75 (26.4)	2 (10.0)	223 (25.4)	174 (24.3)	397 (24.9)
무응답		62 (22.8)	25 (20.2)	37 (14.8)	31 (23.3)	12 (17.4)	15 (9.5)	64 (22.1)	58 (20.4)	3 (15.0)	159 (18.1)	147 (20.5)	306 (19.2)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표 7-2-1〉 원하는 상담 내용(최근 3년간 변화추이 비교표)

〈단위 : 명(%)〉

학년도별	구 분	교우 및 대인관계 문제	진학 문제	해외유학 문제	취업 문제	학교생활 적응문제	기 타
'01		179 (8.0)	471 (21.1)	168 (7.5)	577 (25.9)	200 (9.0)	636 (28.6)
'02		140 (7.3)	426 (22.1)	123 (6.4)	505 (26.2)	183 (9.3)	552 (28.7)
'03		145 (9.1)	292 (18.3)	124 (7.8)	397 (24.9)	137 (8.6)	499 (31.3)

7-3. 봉사활동 참여 여부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알아 본 결과,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68.9%, '의사가 없는 경우'가 28.2%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학별로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의과대생이, '의사가 없는 경우'가 해양대생으로 다른 대학 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남녀별로는 남학생(62.5%) 보다 여학생(76.8%)이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3〉 봉사활동 참여 여부

〈단위 : 명(%)〉

봉사활동 참여 여부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예		187 (68.8)	82 (66.1)	181 (72.4)	106 (79.7)	44 (63.8)	89 (56.3)	213 (73.7)	181 (63.7)	19 (95.0)	549 (62.5)	550 (76.8)	1099 (68.9)
아니오		72 (26.5)	37 (29.8)	61 (24.4)	25 (18.8)	24 (34.8)	65 (41.1)	69 (23.9)	98 (34.5)	1 (5.0)	307 (35.0)	143 (20.0)	450 (28.2)
무응답		13 (4.8)	5 (4.0)	8 (3.2)	2 (1.5)	1 (1.4)	4 (2.5)	7 (2.4)	5 (1.8)	-	22 (2.5)	23 (3.2)	45 (2.8)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7-4. 봉사활동 분야

하고 싶은 봉사활동 분야로는 '재가복지' 15.2%, '업무보조' 12.5%, '시설·기관에서의 단순 노력 봉사' 10.0%, '학습·생활지도' 9.7%, '전문 기술봉사' 6.8%,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별로는 '재가복지' 및 '전문 기술봉사'에 의과대, '업무보조' 공과대, '시설·기관에서의 단순 노력봉사' 및 '학습·생활지도' 사범대,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기타' 해양대, '상담봉사' 법정대 신입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전문 기술봉사', '학습·생활지도' 등은 전공과 연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봉사활동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남녀별로는 남학생(66.1%) 보다 여학생(77.5%)이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표 7-4〉 봉사활동 분야

〈단위: 명(%)〉

구 분 봉사활동 분야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생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시설·기관에서의 단순 노력봉사	19 (7.0)	14 (11.3)	26 (10.4)	17 (12.8)	8 (11.6)	15 (9.5)	24 (8.3)	35 (12.3)	1 (5.0)	96 (10.9)	63 (8.8)	159 (10.0)
업 무 보 조	25 (9.2)	15 (12.1)	30 (12.0)	18 (13.5)	7 (10.1)	21 (13.3)	34 (11.8)	47 (16.5)	2 (10.0)	125 (14.2)	74 (10.3)	199 (12.5)
학습 및 생활지도	43 (15.8)	9 (7.3)	16 (6.4)	28 (21.1)	3 (4.3)	10 (6.3)	29 (10.0)	17 (6.0)	-	61 (6.9)	94 (13.1)	155 (9.7)
프로그램 진행 및 보 조	19 (7.0)	12 (9.7)	22 (8.8)	1 (0.8)	5 (7.2)	19 (12.0)	16 (5.5)	12 (4.2)	-	62 (7.1)	43 (6.0)	105 (6.6)
재 가 복 지	46 (16.9)	18 (14.5)	47 (18.8)	28 (21.1)	9 (13.0)	15 (9.5)	42 (14.5)	33 (11.6)	7 (35.0)	101 (11.5)	142 (19.8)	243 (15.2)
상 담 봉 사	16 (5.9)	11 (8.9)	11 (4.4)	10 (7.5)	3 (4.3)	7 (4.4)	12 (4.2)	8 (2.8)	1 (5.0)	30 (3.4)	49 (6.8)	79 (5.0)
전문 기술봉사	20 (7.4)	4 (3.2)	12 (4.8)	2 (1.5)	6 (8.7)	5 (3.2)	35 (12.1)	19 (6.7)	7 (35.0)	46 (5.2)	63 (8.8)	109 (6.8)
기 타	5 (1.8)	2 (1.6)	20 (8.0)	4 (3.0)	4 (5.8)	16 (10.1)	22 (7.6)	12 (4.2)	1 (5.0)	59 (6.7)	27 (3.8)	86 (5.4)
무 응 답	79 (29.0)	39 (31.5)	66 (26.4)	25 (18.8)	24 (34.8)	50 (31.6)	75 (26.0)	101 (35.6)	1 (5.0)	298 (33.9)	161 (22.5)	459 (28.8)
계	272 (100.0)	124 (100.0)	250 (100.0)	133 (100.0)	69 (100.0)	158 (100.0)	289 (100.0)	284 (100.0)	20 (100.0)	878 (100.0)	716 (100.0)	1594 (100.0)

8. 학교에 바라는 사항

신입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사항을 대학생활, 시설물, 대학 분위기 및 각종 교육서비스, 대학 이미지 제고, 취업 및 유학, 등록금, 장학금 등의 관련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사항은 '시설물 확충 및 이전, 이용 정보 제공' 41.4%, '장학금 수혜 확대' 11.5%, '진학, 학습여건 확대'와 '취업 및 취업정보 제공'이 8.0%, '식사 및 복지시설 개선' 6.9%로 나타났다.

〈표 B〉 학교에 바라는 사항

〈단위 : 명(%)〉

학교에 바라는 사항	빈도(%)	학교에 바라는 사항	빈도(%)	합계
진학, 학습여건 확대	7(8.0)	시설물 확충 및 이전, 이용 정보 제공	36(41.4)	87(100.0)
취업 및 취업정보 제공	7(8.0)	장학금 수혜 확대	10(11.5)	
식사 및 복지시설 개선	6(6.9)	기 타	21(24.1)	

IV. 요약 및 제언

본 조사의 목적은 신입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과 심리적인 특성 및 가치, 대학생할, 대학의 이미지와 자긍심, 학부(과) 선택의 과정 및 지속적인 수학여부, 교수와의 관계, 고교생활, 대인관계, 사회문제, 가치관, 상담·봉사센터의 이용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와 학사행정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으며, 조사는 '03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전체 신입생 2,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929명이 질문에 응답하였고,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신입생의 생활근거지가 본도인 경우에 93.7%, 타 시·도인 경우 5.9%로 지난해보다 감소하였고, 입학 후 본가에서 거주하게 되는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2.3% 증가하였는데 이는 타 시·도에서 입학한 신입생의 수가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학교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두번째, 재수를 하지 않은 신입생이 91.4%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보호자는 대체로 아버지(85.9%)며, 어머니, 형·누나, 조부모, 친척 등이 보호자인 경우도 10.4%로 나타났다.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신 경우가 91.9%이지만 84.3%만이 함께 살고 있어서(이혼 및 별거율 7.6%) 전년도 부모의 이혼 및 별거율 5.8%와 비교해 가정의 해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이 드러났다.

세번째, 보호자의 학력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의 직업은 농업, 판매·서비스업과 상업(45.2%)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 중 농업은 전년도에 비해 1.2%가 줄어 매년 감소 추세를 알 수 있고, 가족 수는 4~5인 가족이 73.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월수입이 100만원이상인 가정이 77.3%로 전년도 보다는 증가하였지만, 300만원이상의 가정이 17% 감소한 것은 어려워진 제주경제의 실상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번째, 신입생의 가정분위기는 대부분 화목하다는 반응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12.9%이고, 부모에 대한 느낌은 만족하다는 응답이 81.1%,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2%로 대체적으로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부모가 자신에게 갖는 관심도에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74.0%의 학생이 관심이 크다고 응답하였고, 관심이 적거나 없다는 학생도 3.8%를 나타내고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 신입생들의 고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63.8%의 학생이 만족했다고 기억하며, 입시 준비를 위해 학원 수강 및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39.4%로 대다수의 55.2% 학생들은 학원 수강이나 과외지도 없이 입시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번째, 대학 진학의 목적은 주로 유망한 직업과,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에 있으며, 대학 생활 중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폭넓은 친구교제와 전공공부였다. 신입생들은 입학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공부와 시간 및 생활관리라고 응답했고, 입학 후 76.3%의 신입생이 취미와 스포츠분야의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과정에 다양한 과목을 설치·운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주로 보호자가 부담하지만 본인이 부담한다는 응답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등록금이나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원하고 있어 장학금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신입생중 86.1%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용돈 및 학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학에서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덟번째, 신입생들이 재학 중에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대한 생각은 여건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험해보겠다는 응답이 84.6%로 세계화를 향해 눈을 돌리는 학생들의 열정에 부응할 만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졸업 후에 원하는 취업 분야는 의사·교사·예술가 등의 전문직이나 행정·기술·외무고시 등의 국가기관을 원하고 있었다.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것은 직업 및 진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나 취업과 관련된 영어·컴퓨터, 또는 면접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원하고 있어 관련 프로그램의 개설이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홉번째, 신입생들은 본교를 생각할 때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며, 본교에 지원할 때는 잘 모르지만 대강이라도 알고 지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본교를 지원한 이유는 지역적인 면

42.2%, 합격가능성 30.1%로 육지부와 떨어져 있는 섬의 특성과 성적에 의한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 지원 시 정보의 주된 수집경로는 친구나 선배를 통해 얻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본교 입학에 대한 자긍심은 35.0%에 불과하지만, 전년도 27%에 비해 매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입생들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그저 그렇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도 64.3%나 되어 이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열번째, 입학한 학부(과)에 지망하게 된 동기는 어느 정도 원하긴 하였지만 큰 이유는 성적 때문이라는 응답이 42.7%로 재학 중에 학업동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위의 독려가 필요하며, 학부(과)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어 학부(과) 선택에 대한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부(과)를 선택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 취업전망(30.4%)이 적성이나 학문적 흥미에 앞선 것은 입학 하면서부터 취업에 무게를 주는 것으로, 입학 후 자신의 학부(과) 선택에 따른 진로지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열한번째, 지망한 학부(과)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나 지망학부(과)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본교의 지원 정보 수집경로나 본교에 대한 사전 인지도와 같았고, 고등학교 3학년~입학원서를 접수하는 기간 중에 지망학부(과)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미리부터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학생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열두번째, 신입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이나 전공과 관련된 직종을 원하고 있고, 현재 선택한 전공은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56.5%로 전년도의 51.8%보다 증가하였지만 부전공을 택하거나, 전과나 학사편입, 다시 입시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도 많이 있었다. 또한 복수전공에 대하여는 42.3%의 학생이 이수할 의사가 있었고, 복수전공을 택할 경우에는 사범대, 인문대, 경상대의 순으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과나 복수전공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열세번째, 신입생들은 교수들에게 전공학문의 지도를 가장 받고 싶어 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적인 관계와 전공 이외의 학문적인 지도도 더불어 기대하고 있었다. 대인관계는 대체적으로 원만한 편이며, 평소에 자신의 적성 및 진로와 학업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주로 친구나 어머니와 의논하며 본인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도 17.3%나 되어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올바른 도울 수 있는 기회와 정기적인 심리 및 적성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신입생의 37.2%가 이성친구가 있으며, 이성교제 시 성관계의 허용은 사랑하거나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응답이 43.8%로 개방적인 성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었고, 더불어 건전한 이성교제와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할 것이다.

열네번째, 신입생들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노력과 실력을 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라가 당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전년도와 사치와 부정부패보다 빈부의 격차가 더 큰 문제라고 응답하여 어려워진 경제를 체감하고 있었으며, 제주도민이 겪는 문제점은 전년에 이어 지역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시각이 바뀌도록 사회 및 정치지도자의 각성과 올바른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주지역 개발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열다섯번째, 신입생들은 개인문제가 있을 경우 상담·봉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싶어(58.0%)하며, 학생들이 받고 싶은 내용은 취업과 진학 문제로 미래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알 수 있었다. 68.8%의 학생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으며, 봉사활동 분야로는 재가복지와 업무보조 등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봉사활동을 원하고 있었다.

열여섯번째, 신입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사항은 대학의 시설물 확충 및 이전이나 이용 정보를 제공 받기를 원했고, 장학금 수혜 확대와 학습여건 확대를 요구하였다.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와 지속적인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金斗和, '1994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분석', 학생생활연구 제16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1995.
- 金斗和, '1995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7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1996.
- 金斗和, '1997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9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1998.
- 金斗和, '1998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0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1999.
- 金斗和, '1999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1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2000.
- 金斗和, '2000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2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2001.
- 金斗和, '200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3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2002.
- 金斗和, '200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4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2003.

<Abstract>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en in 2003

Kim, Kyung Soon

Majors in Counseling Psychology for Ph.D.

The purposes of this survey are to collect and analyze basic data on freshmen, to understand students' general matters and to utilize the data as basic materials for student guidance and administration; to find out the students' general matters, we asked freshmen about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 values, university life, impression and pride on university, the reason for choosing their majors, whether they will keep studying, the relations with professors, life in their high school, social relationship, the point of view on social issues, and to what extent they turn to the consultation service center.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2,660 freshmen during the orientation course in 2003, and 1,929 students answe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mong freshmen, 93.7% were grown and live in Jeju, and the students from other regions and cities account for 5.9%, down from the previous year.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still live with their parents after entering the university increased 2.3 % from the previous year. Since this student demographic change seems related to the decreased freshmen from outside Jeju Island, we need aggressive support and attention to promote the university.

2.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ve just graduated from high school grew by 91.4% from the previous year. Most students' (85.9%) supporters are their fathers and 10.4% of students have their mothers, siblings, grandparents, or relatives as their supporters. 91.9% of all freshmen have both a father and a mother, but only 84.3% live with their parents; students whose parents are divorced or separated accounts for 7.6%, up from 5.8% last year, which shows that broken families became a serious social issue.

3.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parents remains almost the same as the previous year. In terms of parents' jobs, farmers, storekeepers, merchants and people working in the service industry are the majority (45.2%) the number of parents dealing in agriculture dwindled 1.2% year on year. In terms of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students who have four to five members account for 73.2%.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se family monthly income is over 1 million won is 77.3%, up from the previous year, but families with monthly income of 3 million won or more decreased by 17%, which reflects the reality of sagged local economy.

4. Most of the freshmen replied that they live happily with their family, while 12.9%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do not. While 19.5% of th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are unsatisfied with their parents, the vast majority of 81.1% said they are positive about their parents. As to how much their parents care about them, similar to last year, 74.0% answered "much" and 3.8% "little". We should develop programs for tendering students' sentiments and use them for student guidance.

5. As to student satisfaction with their high school life, 63.8% answered they were happy with their life in high school. Fo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39.4% students have ever been tutored or depended on after school classes. On the other hand, 55.2% did not turn to tutors or after school classes.

6. Their motives of university entrance are to get well-paid jobs and acquire professional knowledge. What they want to do most in college is make friends and study. They are concerned about study, time spending and life planning. 76.3% of respondents said they want to join clubs for their hobby or sports. Accordingly, we need to establish more various subjects and courses in order to offer more efficient university life to students.

7. Students' tuition fees and living expenses are covered primarily by their supporters or parents, but an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pay themselves. Most students want scholarship and part-time jobs to pay tuition fees and other expenses so that we need to

secure more funds for scholarship. Moreover, given that 86.1% of freshmen want part-time jobs to cover the money, university authorities should give students more income-earning opportunities.

8. Questioned about overseas travel and study during in college, 84.6% of respondents said they would like to do if chances are given; which calls on the university to give opportunities to students turning their eyes toward the world to meet their demand. As to jobs they want to have after graduation, they pick doctors, teachers, artists, and higher ranking government servants throughstate examinations. What they demand from the university about employment are information on job openings and career and programs for English learning, computer skill and job interview. He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relevant programs.

9. Questioned about the impression 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NU), freshmen conjure up beautiful campus first. When they applied for admission to the university, most of them knew about CNU, if not know very well. What they took into account when applying was regional aspects of Jeju Island (42.2%) and the possibility of success given their scores (30.1%). They got information on the university mostly from friends and senior students. Questioned about themselves as students of CNU, 35.0% replied they are proud of CNU, increased compared to 27% last year. On the other hand, students who answered "so-so" or "ashamed" reached 64.3% of the respondents. Consequently, we must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students to lead a campus life with pride.

10. Most freshmen seemingly chose their major because they want, but 42.7% said they were influenced by scores most when determining a major; they must need inspiration from others not to lose their studying will. The fact that most students determined their majors according to their own will illustrates that freshmen have developed their own judgment to some extent. When choosing their major, they took into account job opportunities (30.4%) first and most, rather than their aptitude and qualification, which indicate that students put a premium on job seeking from the

beginning of college life. Such a tendency calls for student guidance to help them choose their major and career.

11. They have the same information channels and the same level of name recognition of the department they want to apply for as those of CNU. Many students chose their major during the period when applications were accepted which means students do not prepare for their career in advance. Thus, it seems necessary to counsel students from their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days.

12. Most students want to work in the same field as their major. While 56.5% of the respondents want to stick to their current majors, up from 51.8% last year. Many respondents said they are also considering minoring in another study, transferring or preparing for the next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s to double major, 42.3% showed their intention of double majoring, and the preferred second majors are, in order, education, humanities, and business studies. We need to develop programs to help students fully understand their major, related studies and courses and doublemajoring.

13. Most of all, freshmen want to take an academic advice from professors. The students also expect advice on other fields of study as well as closerelations from them. The students have relatively integrated relations with others. Their common concerns are career, characteristics and aptitude and capability. Students usually deal with those problems by talking with their friends, by getting help from their mother and some students (17.1%) by themselves we should give them more care and guide them systematically through regular psychological and aptitude tests. Among freshmen, 37.2% have a girl/boy friend. 43.8%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could have sexual relations if they love their girl/boy friend or they promise to marry, which shows an aspect of open sex culture and urges to develop and provide programs about sexual matters in an effort to establish sound love rela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desirable sex culture.

14. Freshmen consider efforts and capability as the requirements for social success.

They picked the wealthy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as the most serious problem faced with Korean society, in contrast to extravagance and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last year. They seem to feel the economic difficulties and consider poor local development as No.1 challenge facing Jeju. Therefore, we should urge social and political leaders to realize the situation and change their mindset to the right direction so as to help students take a positive perspective. Besides, regional development in Jeju should be carefully addressed.

15.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58.0%) want to get advice from the consultation service center on personal problems. What they want to talk are about jobs and graduate schools. 68.8% said they are thinking about volunteering to help others, though not professional.

16. Freshmen want university authorities to expand facilities, offer information on how to use them, increase beneficiaries of scholarship, and build a better study environment. Even though the authorities cannot meet the all demands from students, we have to listen to even their small voices and continue supports for them.

REFERENCE

- Kim Doo-hwa, "Survey and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en in 1994",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 16, CNU Student Guidance Center, 1995
- Kim Doo-hw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en in 1995",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 17, CNU Student Guidance Center, 1996
- Kim Doo-hw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en in 1997",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 19, CNU Student Guidance Center, 1998
- Kim Doo-hw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en in 1998",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 20, CNU Student Guidance Center, 1999
- Kim Doo-hw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en in 1999",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 21, CNU Student Guidance Center, 2000
- Kim Doo-hw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en in 2000",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 22, CNU Student Guidance Center, 2001
- Kim Doo-hw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en in 2001",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 23, CNU Student Guidance Center, 2002
- Kim Doo-hw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en in 2002",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 24, CNU Student Guidance Center, 2003